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미술 교과와 연계한 음악감상수업 지도 방안

-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민경

2023년 8월

미술 교과와 연계한 음악감상수업 지도 방안

-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허 대 식

김 민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김민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웅 (서명)

위 원 허 대 식 (서명)

위 원 김 효 정 (서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A Study of Music Listening Method in
association with Art Curriculum
- Focused on Impressionism and Expressionism -

Min-Gyeo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ur, Dae-Sik, Prof. of Music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국문초록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
4. 선행논문 연구	4
II. 이론적 배경	7
1. 통합교육	7
1) 통합교육의 개념	7
2) 통합교육의 기능	9
3) 통합교육의 유형	10
2.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통합교육	17
1) 음악과 미술 통합교육의 의의	17
III. 인상주의 음악과 인상주의 미술의 연계성	19
1. 인상주의	19
1) 인상주의 미술	19
2) 인상주의 음악	20
2. 인상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음악의 인상주의적 연관성 탐구	21
1) 모호성	21
2) 색채효과	25

IV. 표현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미술의 연계성	28
1. 표현주의	28
1) 표현주의 미술	28
2) 표현주의 음악	29
2. 표현주의 미술과 표현주의 음악의 표현주의적 연관성 탐구	31
1) 내적 감정의 표출	31
2) 추상성	33
V. 미술 교과와 연계한 음악 감상 수업지도안	36
1. 음악 감상 수업지도안	36
1) 수업 모형	36
2) 차시별 지도 계획	38
2. 수업 지도안의 실제	42
1) 제 1차시 수업지도안	42
2) 제 2차시 수업지도안	48
VI. 결론 및 제언	56
<참고문헌>	58
<부록>	61
<ABSTRACT>	65

표 목차

표 1	27
표 2	30
표 3	38

그림 목차

그림 1	12
그림 2	12
그림 3	14
그림 4	15
그림 5	16
그림 6	17
그림 7	22
그림 8	27
그림 9	32
그림 10	34
그림 11	36

악보 목차

악보 1	23
악보 2	23
악보 3	24
악보 4	24
악보 5	25
악보 6	25
악보 7	26

국문초록

미술 교과와 연계한 음악감상수업 지도 방안

-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

김민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 허대식

본 논문은 음악 교과 수업에 있어서 단편적인 교과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음악 감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미술과 연계한 음악감상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수업지도안에서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음악을 같은 사조의 미술 작품과 연계하였다.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이 탄생했던 때의 시대적 상황은 산업혁명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색깔로 새로운 양식을 구축하여 그 이전에 어느 시대의 음악보다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면모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높은 가치가 있는 태도이다. 오늘날 방대한 지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회는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 기반은 통합적 사고에서 시작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과 연계한 음악 수업을 위하여 포가티(Fogarty)와 드레이크(Blake)의 통합교육 모형을 이론적 배경에 두고 선행논문 고찰로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음악은 같은 사조의 미술과 연관된 요소가 작품 곳곳에 드러나 있기에 음악과 미술을 함께 학습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도울 것이다.

본 논문은 선행논문들에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로 차시를 각각 나누어 다룬 것과는 달리 1차시와 2차시 모두 한 차시 안에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예술 사조를 함께 다룬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두 사조의 작품에서 시청각적으로 느껴지는 극명한 대비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작품이 가지는 특징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빠른 이해와 폭넓은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차시에서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예술 사조의 특징을 비교하고 두 예술 사조의 음악과 같은 사조의 미술 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차시에서는 1차시에서 큰 맥락으로 학습한 내용에서 발전시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각 사조의 음악과 미술의 기법적 특징을 알고 그 기법적 특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음악, 미술적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심화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차시마다 활동지에 개인의 생각을 묻고 작성한 것을 토대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둠별 창작 활동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단편화된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범위가 넓은 내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수업지도안으로써의 활용을 기대하며,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과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이 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로 인하여 방대하고도 각각의 학문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지식과 정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문명 한가운데 살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은 더이상 단편적으로 쓰이지 않으며 통합되고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적인 사고와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하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식을 선별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서로 독립된 교과를 가르치는 것보다 학문 또는 교과 간의 통합적인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적 교육은 각각의 여러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 다른 예술 및 교과와의 연계는 학생들의 음악 지식을 심화시키고 흥미를 높이며 학습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첫째, 음악과 미술, 춤, 연극, 문학, 영화 등의 다른 예술 영역들과의 연계는 다른 예술의 표현 수단과의 결합을 통하여 음악의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다른 예술과 음악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둘째,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음악 안에서의 사회·인문·자연과학적인 특성들을 발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시각을 넓혀 주고,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음악은 어느 시대에서든 그 사회의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받으며 흘러왔다. 한 세기를 훌쩍 넘어가는 시간대에서 공통적인 양식을 발달시켜나간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 음악과는 달리 현대음악은 다양한 사조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이고 새로운 음악 양식이 불과 수십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면모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와 여러모로 닮아있다.

현대음악은 작곡가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 자유롭게 포용하였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실험적 특성과 독창적인 표현 방법은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소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음악의 학습에 있어서는 음악에만 국한된 내용 학습에서 벗어나 폭넓고 다양한 사고력의 증진을 위하여 각 음악 사조와 연관된 예술 장르를 연계하는 자료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예영, 2017)

미술 사조의 용어를 고스란히 가져온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은 물론이고 시청각 예술을 결합하는 시도에서 비디오 아트가 탄생하기까지 미술과 현대음악은 서로 많은 영향을 끼치며 발전해왔다. 현대음악 사조와 음악사 학습을 위하여 다른 예술 자료와 함께 다루는 방법은 학습 이해에 효과적일 것이며, 특히 미술 교과와의 연계적 학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대창, 2004)

본 논문에서는 현대음악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 미술교과와 연계한 음악교과 수업 모형과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대음악 중에서도 명칭에서부터 대비를 이루지만 미술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을 동시에 다루고 같은 사조의 미술 작품과 연계함으로써 창의적인 예술 표현 경험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 교과의 부족한 수업 시수 안에서 학생들에게 하여금 미술 교과를 연계하여 폭넓어진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잠재적인 예술적 능력을 항상 시키고 창의적 능력과 통합적 안목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두 예술사조의 미술과 음악을 같은 사조 안에서 연계하여 음악 감상 수업지도안을 고안한 것으로, 미술 교과를 연계하여 폭넓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고등학교 음악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고안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과 미술을 연계한 선행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고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 통합교육의 개념과 기능,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수업지도안에 적합한 통합교육 유형을 적용한다.

셋째,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음악, 미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같은 사조 안에서 음악과 미술 작품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넷째,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총 2차시로 이루어지는 음악 감상 수업지도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수업 지도안의 음악과 미술 작품은 선행논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두 예술 사조의 작품을 기반으로 선정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선행논문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의 영역을 구성한다.

넷째, 본 연구의 수업지도안은 연구자가 고등학교 교육현장실습에서 총 1차시 수업으로 만들어 활용하였던 지도안을 바탕으로 고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총 2차시의 수업지도안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재곡을 변경하였고, 미술 연계적 학

습활동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제시한 총 2차시의 수업지도안이 실제 학교 현장 수업에 적용되지 않았기에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제시한 총 2차시의 수업지도안이 실제 학교 현장 수업에 적용되지 않았기에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둔다.

4. 선행논문 연구

선행논문의 연구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두 예술 사조의 각 사조 안에서 미술 작품과 음악을 연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미술과 음악의 연계라는 큰 관점에서 원시주의, 야수주의를 다루는 논문도 선행논문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지선(2006)은 인상주의, 표현주의의 미학적 경향을 탐구하고 각 사조의 음악과 미술의 특징, 내적인 이념과 외적, 형식적인 면에서 연관성을 탐구하고 8종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음악작품과 미술작품을 연계하여 제시한 교수학습지도안의 1차시에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인상주의를, 2차시에서는 ‘달에 홀린 피에로’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표현주의를 다루었다.

최안나(2011)는 두 예술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같은 사조의 미술과 음악의 상호연계성을 탐구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밝혔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와 음악과 생활교과서를 분석하고 가장 많이 실려있는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과 ‘달에 홀린 피에로’를 각 차시의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미술 작품과 연계해 총 2차시의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최준영(2012)은 이론적 배경으로 통합교육의 개념 및 기능과 유형을 밝히고 음악과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인상주의 음악과 미술의 미학적 연관성을 모호성과 상징성으로, 표현주의 음악과 미술의 연관성을 자아표출과 추상성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총 2차시로 진행되는 수업지도안은 1차시에서 인상주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였고, 2차시에서 ‘달에 홀린 피에로’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였다.

장미(2014)는 17종의 음악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서에서 현대 음악의 비중이 적고 미술과 관련된 내용은 인상주의 미술 사조에 한정되어 있으며 미술 작품과 음악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내용적 오류도 있어 미술 교과와의 연계 학습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1890년대 이후의 음악’을 현대 음악으로 정의하고 다섯 가지의 현대 음악 사조와 관련된 미술 사조를 선정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다. 현대 음악과 미술이 발생한 시기의 사회와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과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사조로서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별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기법과 요소들의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

김현지(2017)는 포가티와 드레이크의 통합교육 모형을 적용하여 표현주의 음악과 미술을 연계한 음악감상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통합교육의 개념, 필요성, 유형을 알아보고 지도안 연구에 적용이 어려운 것과 적합한 유형을 설명하였다.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총 3차시로 이루어지는 수업지도안에서 1차시에서는 표현주의 음악과 미술에 내용을 다루었고, 2차시에서는 쇤베르크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달에 홀린 피에로’ 작품의 특성을, 3차시에서는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과 ‘달에 홀린 피에로’의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김아영(2018)은 포가티가 제안한 통합교육 유형 중 공유형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기법 중 육색사고모 기법을 적용하여 1차시는 인상주의, 2차시는 표현주의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창의적 사고기법을 적용한 수업지도안은 참신하였으나 미술과 음악에서 공유된 개념인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특징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고 연관성을 갖는지 알기에는 설명이 다소 부족하여 제시한 수업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학습 내용과 활동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위 선행논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학습자료를 제시한 장미(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 수업지도안을 제시한 이지선(2006), 최안나(2011), 최준영(2012), 김아영(2018)의 연구에서는 모두 1차시에서 인상주의를, 2차시에서 표현주의를 다루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자는 1차시와 2차시 수업 모두 한 차시 안에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예술사조를 함께 다루어 선행논문과의 차별성을 두려한다. 두 사조는 미술과 음악이 공유할 수 있는 연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

이 있지만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라는 명칭에서부터 대비를 이룬다. 미술, 음악작품에서 시청각적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예술사조를 한 차시 안에서 동시에 다루며 즉각적으로 비교되어지는 정보를 통하여 더욱 폭넓은 내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수업지도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합교육

1) 통합교육의 개념

통합교육의 개념은 미국에서 일어난 진보주의 교육운동과 더불어 학습 경험의 복합과 교육과정의 통합을 주요한 논제로 삼으면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유광찬, 2000)

통합교육을 다루는 관련 문헌 안에서 ‘통합’의 의미는 논문의 수만큼, 학자의 수만큼 다양하다. 그 이유는 각자가 여러 수준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 수준에서의 ‘통합교육(movement of integrated education)’,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통합(curriculum integrating) 혹은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 교재 수준에서 다양한 통합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통합교재(unit designing or unit planning)’, 수업 수준에서 ‘통합수업(implementation of curriculum integration)’ 등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각각 사용하는 방식과 의미가 다소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통합의 의미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통합이라는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까지 통합은 서양 학교 교육에서 볼 때, 교육 철학 분야에서 특히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인(whole person), 조화(Harmony)를 뒷받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라톤(Plato 427-347 B.C),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 1592-1670), 듀이(John Dewey, 1859-1952) 등의 사상으로부터 통합의 근원을 찾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나아가 교육과정 및 수업 수준에서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930년대 이후였는데 ‘통합’은 교과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으로(pedagogically) 인식되었다. 이를 위하여 통합단원을 설계하여 실행하기 시작했고,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혹은 통합교육과정 개발을 안내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연구되었다.(정광순 외, 2019)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전인교육을 강조하게 된 흐름에 따라 통합적으로 조직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통합교과가 교육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다.(이영만, 홍영기, 2006)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은 통상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가리키며 국내 교육학자들이 통합교육에 대하여 내린 다양한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이경민 외, 2010)

이영덕(1983)은 교육과정 통합과 통합교육과정의 두 용어를 동일한 개념 체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정 통합이란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내용적 영역에서는 각각 다른 학습 경험들이 상호 관련되어 의미 있게 모여서 전체로서 하나의 학습이 완성되고 나아가 인격적 성숙을 불러오는 과정 또는 그 결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통합은 교육과정의 요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들을 상호 관련을 맺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의미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과정 또는 시도라면, 통합교육과정은 그 시도로 도출된 결과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곽병선 등(1981)은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이전에 전통적으로 각 학문 또는 지식의 체계에 따라 분화, 분절되어 교과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조직, 선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 교과의 지식이나 경험을 교과 간의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학생의 흥미, 제재,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재복(2000)은 통합교육과정은 적합한 맥락 안에서 독립적으로 다양한 계획과 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문제의 중심적인 접근법 혹은 개념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통합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참여하게 될 계획과 활동들은 물론, 고안될 개념들까지 포함하여 자신이 활동하는 학습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양서원(2003)은 교육과정 통합이란 교과의 영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별개의 교과 영역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도록 하는 교육과정 구성의 한 접근 방식으로 두개 이상의 교과목 내용 간 조화롭게 수업을 계획하여 수업 시행에서 혼합·종합·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위 내용과 같이 통합교육의 개념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으나 교과목들을 분리시키는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교과목들이 사라지는 교육과정 조직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정의된다. 학자들은 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의 목표는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미술 교과와 음악 교과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수업 지도안을 만들기에 앞서 통합교육의 의미를 교과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연계하여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개별적인 지식의 학습을 넘어서 관련성을 가지는 지식들까지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보고 본 연구의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합교육의 기능

통합교육과정의 기능은 통합교육과정이 교육에 어떠한 작용을 하며, 결국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Ingram(1979)은 통합교육과정의 기능을 인신론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인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재복, 2000)

(1) 인신론적 기능

인신론적 기능은 주로 지식을 판단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는 의식작용과 관련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급속한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적으로 지식을 재해석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통합교육과정은 이러한 ‘지식의 폭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줄 수 있다. 둘째, 다른 지식의 영역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키게 한다. 지식의 발달은 전문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응집성은 더욱 작아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식의 분절화 경향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나타낸 것으로 지식의 상호관련을 위하여 주제 또는 개념이나 원리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2) 심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내용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는 기능이다. 첫째,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걸맞는 교육의 실천을 수월하게 한다. 통합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활동과 흥미, 필요, 관심에 근거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려 하며, 학습자의 현재 지식의 명확성과 양, 조직 상태와 관련되어 인지 구조 속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학습자의 전인적인 인격 계발에 도움을

준다. 전인교육은 서로 다른 특성만을 키우는 것이 아닌 한 개인 내면에서의 조화, 그리고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통합된 인간을 길러야 한다는 면에서 통합 교육과정의 이로운 점을 생각할 수 있다.

(3)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은 통합 교육과정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점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기능이다. 첫째, 사회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이나 사회가 공동으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문분야만의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것을 종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관련분야가 공통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회의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 요구되는 통합적 안목의 성숙은 분과 중심의 교육방법 보다는 통합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른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에서는 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교사 간의 경쟁도 고조되어 있다. 통합 교육과정은 교육내용 조직상의 통합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통합도 중요시하고 있다. 탐구수업이나 발견학습과 같은 심리적 과정이 수반되는 학습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되며 함께 활동을 전개할 때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회와 학교를 연결시켜 준다. 학교와 사회는 상이한 가치체제를 가진다. 학교는 학문적·지적 전통을 지니고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사회는 실제적인 생활사태에 관심을 갖고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교육과정은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통합적 접근을 실용주의적이며, 실제적인 일의 세계에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과 생활의 분리현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통합교육의 유형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학자들간의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된 하나의 관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학문 연결 방식에 의해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적 통합의 세가지 유형으로 제안한 Drake의 유형과 10가지의 교과통합의 접근 방식 모형을 제안한 Fogarty의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1) 드레이크(Drake)의 유형

드레이크는 통합교육과정의 의미를 학문을 연결 짓는 것으로 보고, 통합교육과정의 설계에서 개별 학문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에 따라 다학문적 (multi-disciplinary),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그리고 초학문적 통합 (trans-disciplinary)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학문적 통합이란 독립된 교과 영역이 중심이 되어 다른 교과와 관련된 주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간학문적 통합이란 통합적인 주제가 중심이 되도록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학문적 통합이란 교과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권이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습자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김재복, 2000)

통합 유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경민, 최일선, 2010)

가. 다학문적

다학문적 통합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 분야의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한다. 각 교과 간 상호 독립적이고 특징이 분명함에 따라 여러 학문 간의 결합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형태이다.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해결해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다학문적 통합은 주제 또는 제재 와 관련하여 여러 학문이 다양하게 동원되는 방법으로 학문의 개별적 성격이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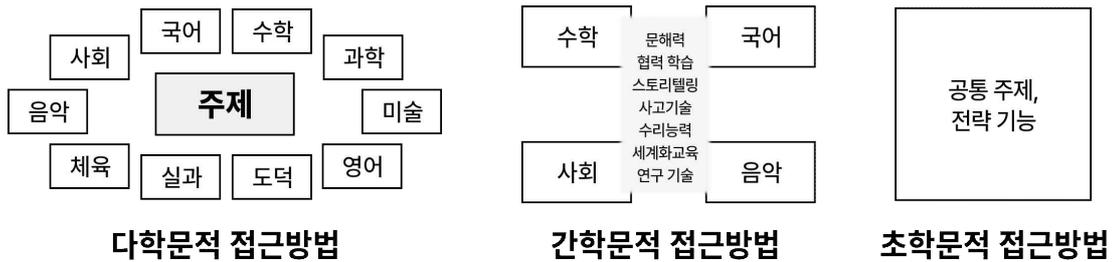
나. 간학문적

간학문적 통합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학문 분야에 걸친 공통된 학습 주제나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러 학문의 공통적인 주제, 개념, 기능, 이슈, 고급 사고력 등을 중심으로 각 학문 내용을 재구성한다. 각 학문 간의 독립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학문적 통합에 비하여 각 학문의 독립성이 약하고 교과 간 높은 연계성을 가진다.

다. 초학문적

초학문적 통합은 학습자 중심에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개별 학문이나 교과의 틀을 허물고 학습 내용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교과의 독립성이 완전히 상실된다. 학생들의 관심사나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다양한 학문의 독립적 영역을 초월하여 완전한 통합 형태의 통합교육과정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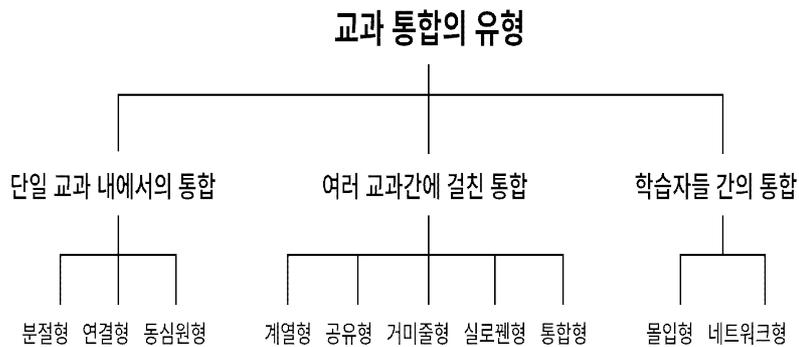
루고자 한다. 완전한 통합교육과정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소한 교육과정이라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1> 드레이크의 유형

(2) 포가티(Fogarty)의 유형

포가티는 먼저 통합의 유형을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 여러 교과간에 걸친 통합, 학습자 자신과 여러 학습자들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 세 단계를 10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에는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이 있으며, 여러 교과간에 걸친 통합에는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펜형, 통합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간의 통합에는 몰입형, 네트워크형이 있다. 포가티가 제시한 10가지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재복, 2000)



<그림 2> 포가티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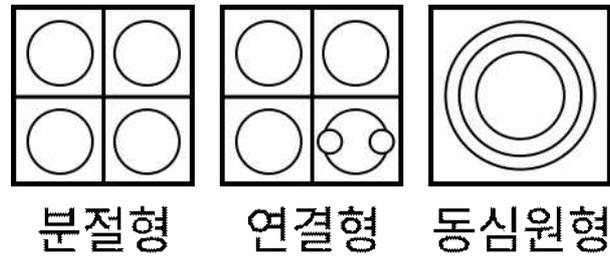
가.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은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이 있다.

첫째, 분절형(fragmented)은 학문영역 혹은 교과의 경계는 서로 뚜렷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개별적인 교과들을 통합하거나 관련지으려는 시도가 없어 각각은 그 자체로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여기에서의 통합은 명시적인 것이 아닌 암시적인 것이다. 개별 교과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교사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준비하며 교과를 깊고 넓게 다룰 여유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유사한 개념들을 통합하는데에 학습자 스스로가 원천이 된다는 것과 일반적인 상황으로의 학습 전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연결형(connected)은 주요 교과들은 분리된 채로 남아있는 반면, 개별교과 영역의 주제와 개념, 기능들을 그와 관련된 다른 주제와 개념, 기능들에 연결하는 모형으로 각 교과 영역 내에서 교과 내용의 주제와 개념, 아이디어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모형의 핵심은 교과 내에서 교육과정을 정교하게 관련지으려는 노력이다. 여러 교과 내의 개념들을 연결함으로써 학습자가 특정 개념이나, 원리, 방법 등을 넓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개념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학습자의 내면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한 교과내에서의 연결이 분명하더라도 다양한 교과들이 분리되어 있어 더 전체적인 관계에서 폭넓은 통합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동심원형(nested)은 하나의 단위, 주제, 장면에 대한 복합적인 차원을 가지고 각 교과 영역 내의 여러 가지 기능을 목표로 한다. 교사들이 수업 내용에 협동적 기능과 사고 기능을 적용하려고 할 때 적합하다. 이 모형은 내용의 목적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고의 초점을 추가함으로써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다양한 목표들을 구조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학습경험에서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차원적인 학습이 될 수는 있으나 둘 이상의 학습 목표들을 단일한 수업으로 묶는 것은 신중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림 3> 단일 교과 내에서의 통합

나. 여러 교과간에 걸친 통합

여러 교과 간에 걸친 통합에는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 꿨형, 통합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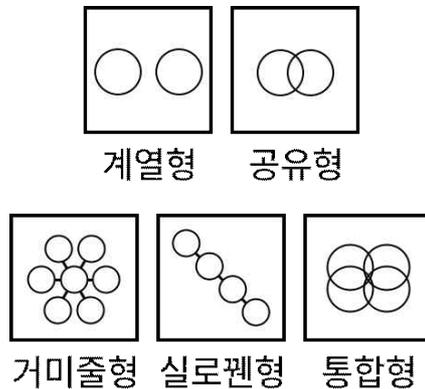
첫째, 계열형(sequenced)은 교과는 제한적으로 연결되지만, 교사는 가르칠 주제의 순서를 재정비하여 유사한 단원을 일치시킬 수 있다. 두 개의 관련된 교과 내용이 동등하게 학습될 수 있도록 계열화할 수 있다. 편집진이 정한 계열을 따르기보다 교사가 주제, 장, 단원 등의 계열을 재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계열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은 까다롭지 않게 전이될 수 있고 보다 일반화될 수 있다.

둘째, 공유형(shared)은 교과에서 비롯된 공유된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벤다이어그램에서 중복된 영역의 유사성을 나타내며, 여기에서의 핵심은 교육과정간의 공통성을 찾는 것이다. 중복되는 개념과 기능을 공유하는 2개의 교과를 짝지어 지도함으로써 전이를 위한 중심 개념의 심화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거미줄형(webbed)은 매우 유용한 주제들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주제는 여러 교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하여 통합의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고 덜 숙련된 교사들도 실행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과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기 쉬운 모형이다.

넷째, 실로 꿨형(threaded)은 사고 기능, 사회적 기능, 연구 기능, 기술공학, 다중지능 등이 모든 교과를 실로 꿨는 듯한 방식으로 학습에 접근한다. 교육과정 통합은 모든 교과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거나 교차하는 메타교육과정(metacurriculum)에 초점을 맞춘다.

다섯째, 통합형(integrated)은 공유형과 유사한 간학문적인 접근 방식(cross-disciplinary)을 보여준다. 주요 교과들을 각각 교육과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주요 교과에 모두 중복되는 개념, 기능 등을 찾아내어 혼합시킴으로써 충실한 통합 모형을 이룬다. 통합은 다양한 교과로부터 나오며, 그것들간에 공통성이 나타나면 결합이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다양한 교과들을 내적으로 상호 관련시키기 쉬운 장점이 있고 분과간의 이해를 도우며, 전문지식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고 내적으로 통합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충실하게 실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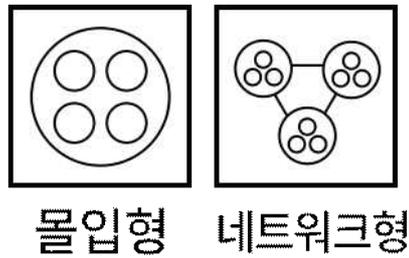


<그림 4> 여러 교과간에 걸친 통합

다. 학습자들간의 통합

첫째, 몰입형(immersed)은 참여자들이 연구 분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뜻한다. 참여자들은 모든 분야의 교과로부터 아이디어들을 자신들의 관심을 통해 골라냄으로써 모든 자료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외부의 간섭이 거의 없는 가운데 학습자의 내부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

둘째, 네트워크형(networked)은 특정 분야의 특징과 차원들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학습자가 새롭게 확장되고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제공받는다. 학습자가 필요한 네트워크를 스스로 선정하여 통합과정을 이끌어나가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모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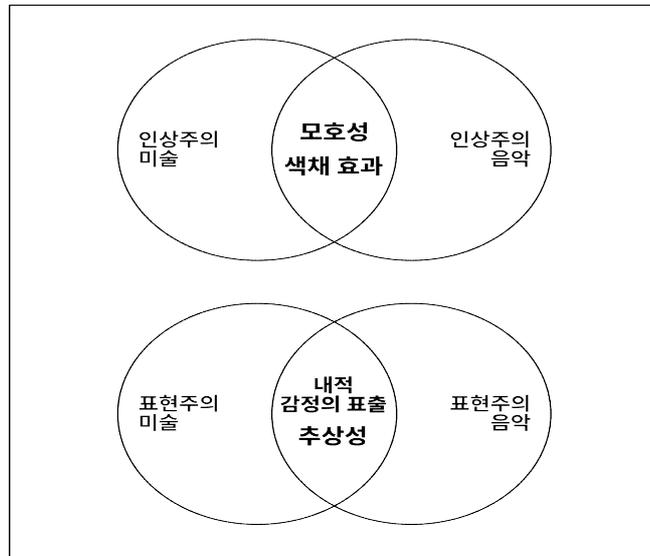


<그림 5> 학습자들 간의 통합

4) 통합교육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통합교육의 유형 중 적합한 유형을 적용하여 음악 교과 수업에서 미술 교과와 연계한 통합교육 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의 연계에서 인상주의, 표현주의의 각 사조 안에서 나타나는 음악과 미술에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두 교과 간의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드레이크의 유형에서는 교과의 주제, 개념, 기능 등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간학문적 유형이, 포가티의 유형에서는 각 교과 내에서 상호 관련 있는 공유된 개념, 기능에 근거하여 통합하는 공유형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더하여 수업지도안 개발 과정에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예술사조의 작품은 시청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대비 될 만큼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만 미술 양식에서 먼저 나타났고 미술과 음악이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두 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두 사조를 비교를 통하여 내용의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모두 한 차시 안에 구성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포가티의 유형에서 상호 관련 있는 개념에 따라서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각 교과의 유사한 주제, 단원, 장 등을 재배치하여 내용 영역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열형 또한 적합하다 판단하여 공유형과 계열형을 결합한 수업 모형을 고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수업 모형

두 사조의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한 차시 안에 모두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차시 안에서 공유형의 모형이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관계로 두 개의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한 틀안에 놓고 보았을 때 계열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계열형은 상호 관련 있는 개념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교과의 주제, 단원, 장 등의 계열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각 차시 안에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동등하게 배치한 후 두 사조 안에서 음악과 미술을 공유형에 적용하여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통합교육

1) 음악과 미술 통합교육의 의의

음악과 미술에는 상호 의미를 바꾸어 쓸 수 있는 용어가 다양하다. 칼라(Color:색상, 음색), 톤(Tone:색조, 음조), 피치(Pitch:피치, 고저) 그리고 볼륨(Volume:양감, 음량)과 크로매틱(Chromatic: 색채, 반음계). 이와 같은 말들이 음악과 미술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오은주, 2009)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는 표현의 텍스트가 다를 뿐 인간의 심상과 사상을 표현하고 아름다움, 미(美)를 재창조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술 교과들은 단일한 기능이나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가지 자극들이 함께 생각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문적 영역에서보다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통합적 경험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요컨대 미술 교과와 음악 교과 간의 통합은 미적, 인간적 경험을 제공하고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민감성, 지각력 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술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인 색, 형태, 선, 짜임새 및 공간 등은 음악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과도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 공간에서 표현되는 음악적 효과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미술적 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개념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신계휴 등, 2011). 음악과 다른 교과 간의 통합은 음악과의 내용과 목표를 바탕으로 다른 교과들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음악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정하고 계획한 후, 다른 교과의 내용과 부합시켜 통합적인 수업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미술과 음악의 연계성을 활용한 통합적인 수업방식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타학문과의 연관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각각의 학문을 이해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전체학습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학교 음악교육의 효용성을 더한다. 음악 교과의 특성상 소리 자체만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힘들어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미술의 시각적 자료와 개념, 활동 등이 작품의 특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현지, 2017)

III. 인상주의 음악과 인상주의 미술의 연계성

1. 인상주의 (Impressionism)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1차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의 유럽은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과학의 발달로부터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과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사람들의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적 예술 양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신화적인 회화, 아카데미한 역사적 주제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근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프랑스의 작가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1867)의 주장처럼 화가들은 산업혁명의 산물이었던 기차를 타고 자연을 새로운 모티브로 삼아 그리게 되었다.(Simona Bartolena 저, 강성인 역, 2009). 결국 그들만의 특별한 새로운 양식을 구축하여 인상주의 미술이 탄생하였고 이러한 면모는 독일음악의 전통 양식을 탈피하여 프랑스 음악만의 색깔을 갖춘 인상주의 음악과 공통점을 가진다.

1) 인상주의 미술

인상주의자들은 빛과 색채를 통하여 찰나의 시각적 감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그들의 주요 관심은 '인상' 즉 짧은 순간에 화가가 눈으로 처음 인식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Carol Strickland, 김호경 역, 2010)

인상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프랑스 화단의 전위적 화가들인 프랑스의 마네(Edouard Manet, 1832-83), 모네(Claud monet, 1840-1926), 피사로(Camille Pissarro, 1830-1903), 드가(Edgar Degas, 1840-1917), 르노아르(Pierre august Renoir, 1841-1919)등의 작품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파리의 예술원은 모네, 드가, 피사로, 씨슬리, 르노와르 등 비정통적 화가들의 작품전에서 모네의 작품인 <인상, 해돋이>를 비꼬아 이들을 '인상주의자'라고 칭하며 비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부

정적인 뜻으로 사용된 용어였지만 낭만주의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이들 화가들은 이러한 비평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인상주의자라 내세웠다. 이들은 빛의 역할을 강조하였기에 실내에서 그리는 정물화나 인물화보다는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리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색의 변화와 명암의 대비를 통해 날씨, 계절의 느낌 등을 표현하려 하였다.

자연에서 포착한 빛의 순간적인 성질을 신속하게 담아내고자 종전의 팔레트를 사용하여 물감을 섞는 방식을 벗어나, 캔버스에 순수한 색의 물감을 나란히 칠하여 놓고 짧은 붓터치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의 혼합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모든 것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선의 유동성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느낌의 색채가 탄생했다. (이종구, 1999)

인상주의 화가들의 색채는 과거의 회화처럼 대상의 색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광선, 광선과 그림자, 또는 특정한 시간대에 화가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좌우되었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었다. 색채는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채색되기보다는 시각 경험에 의해 지배되고 감각에 호소하게 되었다.(김영나, 1996)

2) 인상주의 음악

인상주의 음악은 회화에서의 인상주의가 시작된 것과 유사하다. 독일 낭만주의의 음악 전통을 거부하였던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의 관현악 모음곡인 <봄 Printemps, 1887>에 대하여 “명확성이 결여된 채 모호한 인상만 내놓았다”는 비평문에서 언급되면서 부정적 의미로 출발하였지만 곧바로 긍정적 의미의 음악 사조로 전이되었고 나아가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는 20세기 음악의 지평을 여는 데 기여 하였다.

인상주의 음악의 시간적 범위를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작품의 창작시기인 1890년대 초부터 그가 사망한 1918년까지로 볼 만큼 드뷔시의 영향은 막대하다. 정작 드뷔시 자신은 인상주의 회화로부터의 영향을 부정하고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양한 음계, 프랑스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화성, 병행진행하는 화음 등의 사용으로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의 작품 속 독특한 음악 어법은 발생시기와 출현 배경, 예술가들의 관심 등 인상주의 회화와의 동시대적 영향력

을 배제할 수 없다.(장미, 2014)

넓은 의미에서 인상주의 음악은 하나의 표제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상주의 음악은 후기 낭만주의 교향시의 대대적 편성으로 이루어진 관현악기들의 절제하지 않은 감정의 폭발과 과장된 표현 그리고 직접적이고 세세한 묘사를 따르는 표제음악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드뷔시를 비롯한 라벨(Maurice Joseph Ravel, 1875-1937), 사티(Alfred Eric Leslie Satie, 1866-1925)등의 반낭만적 음악관을 지닌 인상주의 작곡가들은 화성과 리듬, 음색, 선율 그리고 악기의 선택까지 기존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구축해 놓은 전통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 어법을 다루었기에 인상주의 음악은 이전의 음악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2. 인상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음악의 인상주의적 연관성 탐구

인상주의자들은 독일예술에서 두드러졌던 낭만주의적 경향에서 탈피하고 그들만의 프랑스 예술을 구축하고자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인상주의 예술 작품은 기존의 낭만주의 예술과는 분명하게 다른 모호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여기에서는 인상주의자들이 그들만의 작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으로 인하여 자아내는 모호성과 색채효과가 회화와 음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본 논문 지도안의 제재곡과 제재 작품을 바탕으로 인상주의 음악과 인상주의 미술의 연관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1) 모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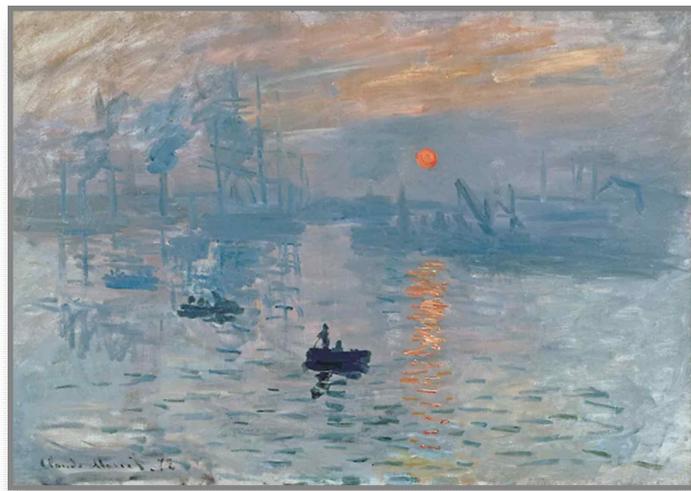
인상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음악의 두드러지는 공통적 특징은 희미하고 불확실하며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이 시각예술과 청각예술 사이의 공통점을 예술의 표현을 위하여 사용한 회화에서의 기법과 음악에서의 기법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미술에서의 모호성

가. 드로잉

모네는 이른 아침의 빛이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 색상을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캔버스에 병치하였다. 인상주의라는 예술 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를 탄생하게 한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형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드로잉이 무시되었고 대상과 인물은 분명한 윤곽선이 없이 빛에 의해 흔들리듯 희미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려졌다.

이처럼 인상주의 회화의 모호함은 색채의 선정뿐 아니라 드로잉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짧고 불규칙하며 자유롭고 빠른 몇 획의 붓질은 빛에 따른 순간을 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그로 인한 드로잉의 경계는 독립적으로 사용된 여러 색채에 의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자연스럽게 윤곽은 흐려지고 대상은 불명확하게 묘사되었다. 이러한 회화의 붓놀림은 드뷔시의 음악에서 리듬이 변칙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장미, 2014)



<그림 7> Claud monet ‘인상: 해돋이 (Impression: Sun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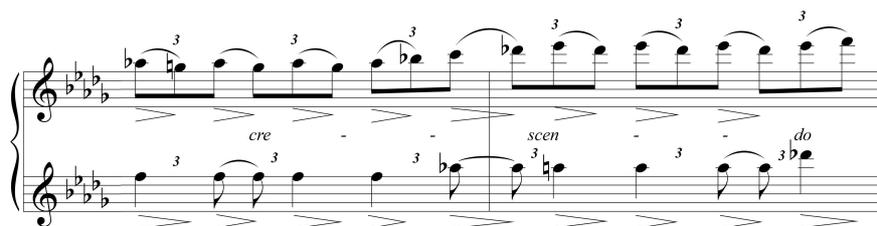
1872년, 유화, 63 X 48 cm,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1) 음악에서의 모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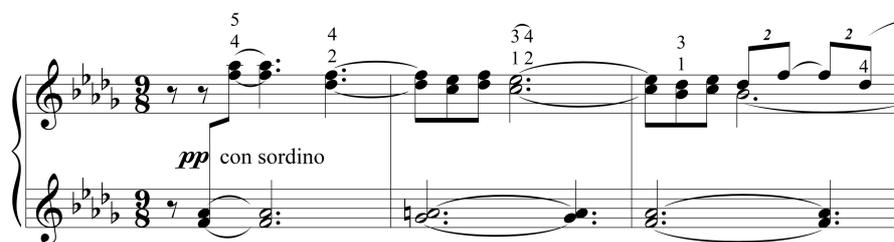
가. 리듬

드뷔시는 선율이나 화성, 독특한 관현악기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조성감을

흐림으로써 모호한 효과를 얻은 것처럼 자유롭게 변화를 준 리듬으로 음악의 율곡선도 인상주의 회화에서의 모호한 율곡선처럼 처리하였다.



<악보 1>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63-6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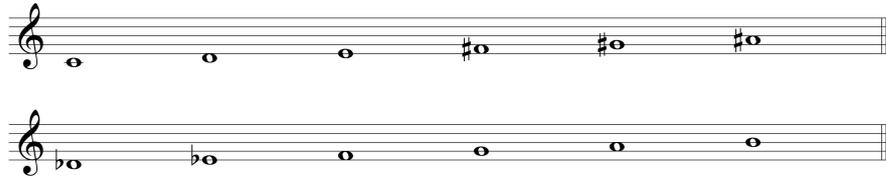
<악보 2> 드뷔시 '달빛', 1-3마디

<악보 1>과 <악보 2>는 마디의 분할과 박에 얽매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리듬의 변화와 자연스러운 음의 흐름을 구사하였다. 당김음을 사용하여 정확한 박자를 세기가 모호하다. <악보 1>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63마디와 64마디의 악보를 보면 당김음과 잇단음표, 악센트의 사용을 통해 마디의 분할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으며, <악보 2>의 '달빛' 시작 부분을 보면 못갓춘마디로 제1주제를 시작하며 1마디에서 8마디까지 오른손의 하행 선율이 끊이지 않고 이음줄과 잇단음표의 사용 등으로 실제적인 박의 진행을 느낄 수 없도록 하면서 몽상적이고 흘러가는 듯한 음악적 효과를 뽑아낸다. (장미, 2014)

이처럼 드뷔시는 엑센트를 이동시키고 박절의 단위를 초월하여 음표의 시가를 계속하여 변화를 주어 강약의 규칙적인 반복이 리듬의 밑바탕이 되었던 기존 독일 음악의 전통적인 리듬 구조에서 탈피하여 인상주의 음악의 모호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이종구, 1999)

나. 다양한 음계

드뷔시는 온음음계, 중세 교회선법, 5음음계 등 다양한 음계를 사용하여 음악에서의 색채적 효과를 얻어내었고 이러한 음계의 사용은 조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기에 그 이전의 음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모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악보 3> 온음음계

<악보 3>과 같은 온음음계는 6개의 음 사이가 온음으로 이루어진 음계이다. 이는 구성음 간 음정의 관계가 온음으로, 어떤 음으로 시작해도 음정관계가 장2도로 동일하여 이끔음(leading tone)에서 으뜸음(tonic)으로의 끌림이 없고 중심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을 느끼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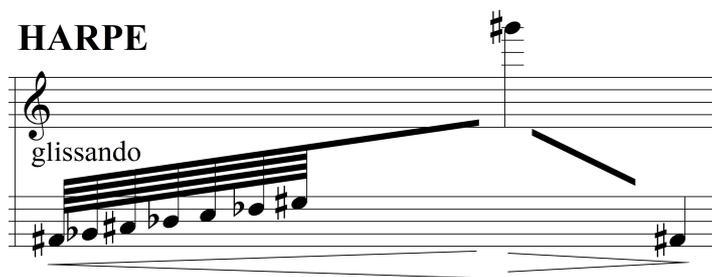
<악보 4>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1-2마디

<악보 4>와 같이 주제 선율이 플루트 독주로 시작되는데 E장조이지만 C#에서 G까지 가장 먼 거리인 증4도 음정 안에서 4개의 온음 <C#-B-A-G>을 중심으로 하여 온음음계를 사용해 조성을 흐릿하게 하고 그 음들 사이에 경과음 A#, G#을 넣어 반음계적으로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몽환적인 느낌을 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온음음계의 사용은 모호한 분위기를 묘사하기에 효과적이다.



<악보 5>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32-33마디

<악보 5>에서는 온음계의 상승과 크레센도로 휘몰아치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주고 있다.(장미, 2014)



<악보 6>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중 3마디

<악보 6>에서는 플루트의 주제 선을 연주 후에 나오는 하프의 글리산도 연주로 C#-E-G-A#의 선을 상행과 하행으로 반복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장누리, 2017)

2) 색채효과

(1) 미술에서의 색채효과

가. 색채

인상주의 미술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빛의 변화에 의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색채적 표현기법을 발견한다. 인상주의 미술의 고유한 특성은 색채의 미묘한 뉘앙스이다. (이지선, 2007)

모네는 시각적으로 감응한 이미지를 일순간에 작은 물감자국으로 캔버스를 채워나간다. 색조를 다르게 바꾸며 덧칠하는 전통적인 기법 대신에 다른 색깔들을 차곡차곡 배열하여 진동하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색의 시각적인 혼합 방법은 일

정한 거리에서 그림을 보게 될 때 사실은 분할된 색채들이 서로 혼합되어 보이도록 한다. 이는 모네가 태양의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느낌을 묘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빛의 이동을 관찰하면서 거칠고 자유로운 붓질로 표현한 빛깔에 따른 색채효과는 연작으로 그린 <포플라>, <수련>, <건초더미>, <루앙의 대성당> 등 한 대상의 형태나 색채변화를 담는 시리즈로 연결되는 작법에 영향을 주었고 훗날 추상적 표현의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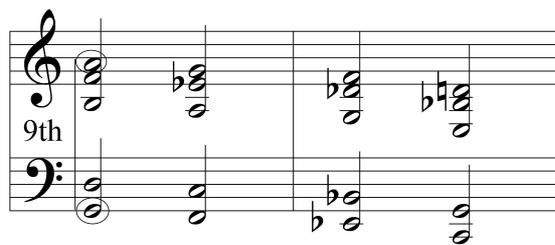
붓질로 각각의 색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은 음악에서 각각의 고유한 음색을 잘 드러내면서도 전체적인 인상을 그려내는 드뷔시 곡들의 색채적인 관현악법을 연상시킨다.

(2) 음악에서의 색채효과

가. 화성법

위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색채 표현기법은 음을 재료로 색채효과를 피하려던 인상주의 음악가들의 분위기 표현에 알맞았고 그들은 다채로운 ‘음색’과 풍성한 ‘화성’을 통해 몸소 느꼈던 색다른 인상을 그려내고자 노력하였다.

인상주의 회화에서의 색채 표현기법은 인상주의 음악의 조성감을 흐리게 하는 화성법과 관현악법의 쓰임에 견줄 수 있다. 인상주의 음악에서 자아내는 모호성과 신비로운 분위기의 표현을 위해 화성, 관현악기들이 뽑아내는 특유한 음색 등 여러 요소가 어떻게 색채효과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악보 7> 병진행 하는 9도 화음

<악보 7>과 같이 7도, 9도 화음이 자주 사용되고, 증화음, 3도, 4도, 2도의 구성 화음들이 마치 중세의 오르가눔처럼 병진행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주조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성을 지닌다. 드뷔시의 화성어법은 비기능적 화성이라는 말

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개별화음들이 하나의 화성의 진행이라기보다는 음향의 단위로 처리되어 선율의 색채나 모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홍세원, 2014)

나. 음색의 대비

고전과 낭만주의 음악에서는 현악기가 주선율을 이끌며 합주를 통하여 극적이고 웅장한 음향을 만들어냈지만 드뷔시는 악기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이전의 전통적 관현악 편성과는 다르게 악기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사용하였다.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부각시키고, 음색의 대비를 위하여 목관악기를 자주 독주의 역할로 사용하고 타악기들로 색채감을 강조하였다. (홍세원, 2014)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에서는 하프가 사용되고 유일한 타악기로 고대 심벌인 생발앙티크를 넣어 맑고 신비로운 음색을 낸다. 플루트의 몽환적인 선율로 시작하여 목관악기가 주로 선율을 도맡아 연주하고 금관악기에 약음기를 끼워 음색의 변화를 주었고 현악기도 마찬가지로 약음기를 끼고 여러 성부로 쪼개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음색악기의 역할로써 부드럽게 연주한다.

<표 1>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의 악기 편성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플룻 3			바이올린 2
오보에 2			비올라 2
잉글리쉬호른 1	호른 4	생발 앙티크	첼로 2
클라리넷 2			콘트라베이스 1
바순 2			하프 2



<그림 8> Claud monet, 루앙 대성당 (Rouen cathedral)
1894년, 캔버스에 유화, 73.5 X 107 cm, 오르세 미술관

IV.표현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미술의 연계성

1. 표현주의 (Expressionism)

표현주의는 19세기 말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사조로서 미술에서 처음 생겨나 음악, 문학, 건축 등 전 예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그 당시 불안정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겪는 긴장, 내적 갈등, 불안, 잠재적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황을 의도적으로 다소 기괴하고 추상적으로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실험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표현주의 운동은 그저 예술 활동이 아닌 그 범주를 벗어나 정신적인 사회적 움직임 중 하나였으며 현대인의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분쟁과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의 기능까지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허영한 등 2009)

1) 표현주의 미술

‘표현주의자(Expressionists)’라고 자칭하는 화가들은 미술이란 개인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자신의 내부세계에 깊숙하게 존재하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모순적인 것을 꺼내놓고자 하였으며 반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그렇게 그들은 더이상 자연을 묘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물주로서의 역할을 부각했기에 마음의 상태가 곧 주제가 되었고 정상적인 사물의 모양이 뒤틀리게 되는 등 매우 강하게 묘사되었다.

표현주의 회화는 선에 의한 형태를 강조하고 인상파에서 사용했던 오묘한 색채와는 다르게 적은 수의 강한 색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색채대비의 효과로 색채의 단순화, 평면화시켰고 구도 또한 형식으로부터 더욱 단순화하였다. (엄숙영, 2004)

이런 주관적인 사조는 19세기 말에 반 고흐와 고갱, 몽크에서 시작하여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벨기에 화가 제임스 앙소르, 에곤 실레, 그리고 오스카

코코슈카로 이어졌다. 표현주의 사조는 1905년에서 1930년까지 독일의 미술계를 지배하였는데 표현주의가 정점에 이르게 된 것은 독일의 ‘다리파’와 ‘청기사파’ 이 두 그룹에 의해서였다.

다리파는 1905년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가 창설한 독일 최초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추구한 화가 그룹이다. 1913년에 해체될 때까지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 단체로 생활 하며 작업을 했는데 색채의 부조화와 극도로 왜곡된 형태를 통하여 극렬하고 고뇌에 가득 찬 작품을 만들었다.

청기사파는 1911년 뮌헨에서 창립되었다. 다리파보다 결속력은 약했으나 뛰어난 화가였던 바실리 칸딘스키가 리더였고 스위스 출신의 파울 클레가 함께하였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해체되었지만 칸딘스키가 순수 추상화를 창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표현주의자들은 미술계에 관화, 특히 목판화를 유행시킴으로써 공헌하였는데 흑백의 극적인 대조,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 톱니 모양을 가진 선들의 목판은 표현주의 회화의 주요 주제인 병든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재료였다.(Carol Strickland, 2010)

표현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본 논문의 지도안에서 다루는 몽크와 칸딘스키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들의 작품과 쇤베르크의 작품을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2) 표현주의 음악

표현주의 음악 역시 인상주의와 마찬가지로 회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외향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인상주의 음악과 다르게 표현주의 음악은 내면적인 감정을 불협화음과 무조성, 불완전한 선율, 원시리듬 그리고 특이한 악기 편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의 <기대(Erwartung)>, <행복한 손(Die glücklich)>, <달에 홀린 피에로(Pierrot Lunaire)>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의 오페라 <보체크(Wozzeck)> 등이 대표적인 표현주의의 음악이다. (홍세원, 2014)

불협화음의 해방, 그로인해 발생하는 음악 형식에서 나오는 논리성의 파괴, 음악미학적 관점의 변화, 장르적 개념의 변화 등 다양한 양상들을 표현주의 음악의 특성

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음악에서의 표현주의는 20세기 음악을 대변하는 개념인 신 음악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신인선, 2006)

음악에서 나타나는 표현주의의 시기는 통상적으로는 표현주의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인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작곡 시기인 제2기로 분류되는 1909년경부터 12음 기법의 출현 이전까지인 1923년까지로 본다. 이는 예술 전반에 걸쳐 표현주의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와도 일치하지만, 쇤베르크의 말기 작품에서도 초기 무조 기법에의 복귀와 더불어 표현주의적 경향이 뚜렷한 음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12음 기법에 의한 음렬음악 작곡시기를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미, 2014)

쇤베르크의 작곡경향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쇤베르크 작곡 시기 분류

분류	연도	특징
제1기	1897 - 1908	후기 낭만주의
제2기	1909 - 1914	표현주의 음악, 무(범)조성음악
제3기	1914 - 1923	12음 기법과 음렬주의 실험기
제4기	1923 - 1933	12음기법
제5기	1934 - 1951	12음기법과 조성음악 절충 시기

본 논문의 수업지도안에서 다루는 표현주의 음악 두 개의 곡 중 ‘달에 홀린 피에로’는 쇤베르크의 표현주의의 제 2기(1909~1914)에 작곡된 대표적인 표현주의 음악이다.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쇤베르크의 미국 망명 이후 작곡되어 그의 후기 작품으로 분류되지만 슈프레히슈팀메(Sprechstimme)등 표현주의적 기법이 생생하게 나타남으로써 표현주의 음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표현주의 미술과 표현주의 음악의 표현주의적 연관성 탐구

표현주의 Expressionism와 인상주의 Impressionism은 알파벳 첫 두 글자만 다르기에 그 대칭성이 잘 드러난다. “인상주의”가 외적인 것을 내면화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표현주의”는 내적인 것을 외면화한다는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홍정수 외, 2002)

여기에서는 표현주의 예술 사조가 나타나던 당시 영향을 주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표현주의 예술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적 감정의 표출과 추상적 예술 표현의 경향이 미술 작품과 음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 그 특징을 연계하여 본 논문 지도안의 제재곡인 ‘달에 홀린 피에로’와 쇤베르크의 표현주의 음악 작곡 시기의 곡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표현주의적 음악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르샤바의 생존자’에서 나타나는 표현주의의 기법적 특징들을 표현주의 회화 작품들과 함께 탐구하도록 한다.

1) 내적 감정의 표출

19세기 말 독일은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매우 불안정한 사회였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립, 종교 간의 대립과 더불어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노동계층과 지배계층의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가 거세게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기술의 발달이 안겨줄 것 같았던 풍요로움은 기대와는 다르게 인간성의 소외와 실존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고 기존의 전통적 이상과 가치가 크게 흔들리게 되어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유럽 전역의 갈등과 긴장은 극대화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으며 이는 예술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1) 미술에서의 내적 감정 표출 :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

위와 같이 사회 전반으로 만연한 문명의 위기의식 속에서 예술가들은 자연주의나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그저 바깥 풍경의 변화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생존의 위협과 잇따르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임미옥, 2011)

예술가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술 전반에서 격정적인 본능과 생명력의 표현을 위한 추상적이고 극단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장미, 2014)



<그림 9> Edvard Munch, ‘절규(Skrik)’

1893년, 마분지에 유채, 템페라, 파스텔, 91 X 73.5cm, 노르웨이 오슬로 미술관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Edvard Munch 1863 - 1944)는 인간의 긴장, 공포, 불안, 우울과 같은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감정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탐구하여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왜곡된 선과 격렬한 색채로 표현하여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조형적 언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뭉크는 주관적이고 극적인 표현, 예술가의 내적 세계를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강렬한 색의 대비를 보여주고, 세세한 소묘가 아닌 강하고 힘 있는 선의 강조를 통하여 인간이 가지는 절망과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통찰이 가득한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1893년 <절규>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시각적인 진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풍경과 인물은 선과 색의 울동적이고 강렬한 움직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표현주의적인 형식을 통하여 극단적인 순간에 처한 인간을 어떻게 시각화하였는가를 볼 수 있다. (임미옥, 2011)

표현주의는 내용주의 미학을 기초로 두어 작품 형태의 완성보다는 내적 감정과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첫 번째이고 조형적인 완성도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엄숙영, 2004)

(2) 음악에서의 내적 감정 표출 : 슈프레히슈팀메(Sprechstimme)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표현주의 음악에도 잠폭 속에 그 당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심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찾고자 하는 실험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현주의 음악에서도 인간 내면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다루었는데 특히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긴장, 갈등, 두려움, 불안,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본능적인 충동 등을 표출하는데 시대에 반항하는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의도적으로 찌그러지고 추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허영한, 김문자 등, 2009)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전에 없던 실험적인 요소는 내적 감정의 표출을 매우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느껴지도록 한다.

‘슈프레히슈팀메’는 말하는 선율이라는 의미로 성악적인 낭송이다. 이 성악 기법은 ‘달에 홀린 뻘에로’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기괴스러운 분위기에서 내적 감정의 표출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성악 기법의 사용은 쇤베르크 작곡 시기 중 제2기에 해당하는 무조성 음악과 조성 체계를 버리면서 나타나는 관계가 단절된 음 사이에 내적 필연성과 형식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접적인 전달을 통하여 더욱 강렬하고 직감적인 표현력을 보여준다. 음의 높낮이가 말하는 듯이 진행되는 선율은 낭독이 주는 풍성한 표현력을 잃지 않으면서 음악적인 선율과의 절충이 시도된 것이다. 리듬은 매우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선율은 텍스트에 의미론적으로 연결되어 상대적인 고저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연주자는 정해진 음높이를 찾은 후에 낭독조로 자유롭게 연주 할 수 있다.(장미, 2014) 악보에서 음의 높낮이와 리듬의 표시는 음의 기둥과 온음 위 또는 아래에 ‘X’표를 그려 기보한다.

2) 추상성

(1) 미술에서의 추상성 : 순수한 색채와 선의 형태

표현주의 회화 양식은 점차 그림 속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변하여 추상화되었다. 칸딘스키의 <인상 III, 연주회>는 기하학적 색조의 조화와 선의 구성 등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허영한 등, 2009). <인상III, 연주회>에서 사물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그 이전의 전통 양식에서는 형태 안에 간혀 있었던 색을 자유롭게 펼쳐 표현하고 있다. 콘서트홀의 분위기와 소리의 상징을 노란색과 검은색을 사용하고 흰색으로 보완하여 더욱 두드러지도록 했다. 칸딘스키는 시각적 인상과 청각적 인상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넓게 칠해진 검은색은 무대 위의 그랜드 피아노를, 왼쪽에 여러 개의 검은 곡선들은 무대와 가까이 앉아 있는 청중들을 상징한다. 피아노를 중심에 두고 양옆으로 있는 흰 기둥은 소리기둥을 표현한 것이다.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노란색은 쇤베르크 음악의 소리로 홀 안이 가득 메워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형태를 단순화하고 왜곡하여 색채를 사용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표현주의 화가들은 내면적인 정신을 표현하였다.(최준영, 2012)



<그림 10> Wassily Kandinsky,
 ‘인상III, 연주회(Impression III, concert)’
 1911년, 캔버스에 유채, 77.5 X 100cm, 렌바흐하우스 미술관

(2)음악에서의 추상성 : 무조성 음악과 12음 기법

표현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창작된 쇤베르크의 음렬음악과 칸딘스키의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가장 큰 공통점은 새로운 기법을 통하여 기존 예술의 관습적 어법과 구체성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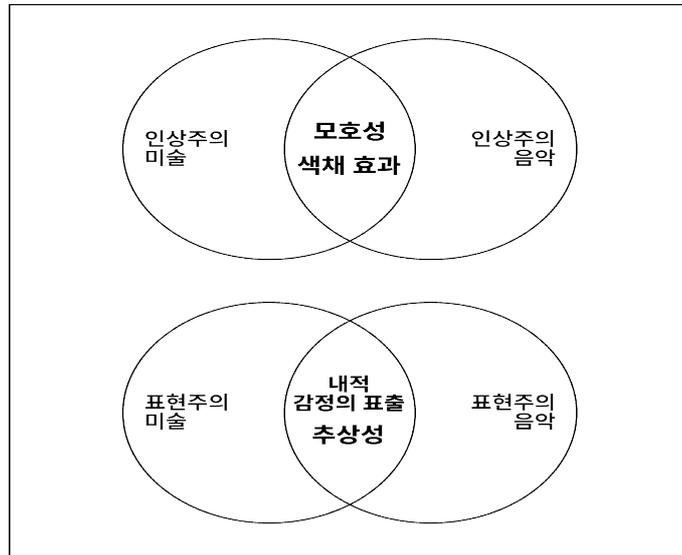
음악사에서 쇤베르크가 순수한 예술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화음에서의 기존 음악의 틀인 조성체계를 완전히 버리고 무조와 12음 기법으로 전환한 것은 미술사에서 칸딘스키가 색채와 형태, 대상 모두를 털어버리고 추상 표현주의로 나아간 일에 비견된다.(장미,2014)

12음 기법이란 반음계의 12음 모두가 균등하게 독립적으로 한 번씩만 나오는 음렬을 미리 만들어 선율을 그 음렬 순서에 따라 결정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음렬을 형성하고 변형시켜 만들어진 음악을 음렬음악이라고 부르며 어느 한 음이 특별하게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조성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무조음악이다.

V. 미술 교과와 연계한 음악 감상 수업지도방안

1. 음악 감상 수업지도안

1) 수업 모형



<그림 11> 수업 모형

미술과 연계한 고등학교 음악감상 수업지도안을 만들기 위하여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통합교육의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한 포가티의 공유형과 계열형을 결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한 차시 안에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두 사조를 함께 학습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두 예술 사조의 작품은 시청각적으로 서로 강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비교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두 사조 모두 미술 양식에서 먼저 일어난 예술사조라는 것과 미술과 음악이 연관된 특성을 가지는 점에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기에 유사한 주제, 개념, 단원 등을 재배치하여 내용 영역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열형을 적용하여 한 차시 안에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사조를 동등

하게 배치하였다. 여기에서 한번 더 상호 관련 있는 공유된 개념을 공유하여 2개의 교과를 짝지어 지도함으로써 전이를 위한 중심 개념의 심화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형을 각 사조의 미술과 음악을 묶는 데에 적용하였다.

각 사조의 미술과 음악의 공유된 개념은 위에서 다룬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 탐구와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 탐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상주의는 ‘모호성’과 ‘색채효과’로 표현주의는 ‘내적 감정의 표출’, ‘추상성’으로 두었다.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공유된 개념 첫 번째는 ‘모호성’이다. 먼저 미술에서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미술에서는 순간의 인상을 담기 위하여 빠른 붓질로 사용된 여러 가지 색채에 의해 모호하게 표현되어 윤곽이 흐려지고 대상을 불명확하게 묘사하는 인상주의 미술의 ‘드로잉’이다. 음악에서는 마디의 분할이 잘 느껴지지 않고 당김음으로 인하여 정확한 박을 세기가 모호하고 불규칙적인 인상주의 음악의 ‘리듬’과 온음음계, 중세 교회선법, 5음음계 등 다양한 음계를 사용하여 조성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양한 음계’가 속한다.

인상주의 공유개념 두 번째 ‘색채효과’에 속하는 것으로 미술에서는 자연에서 포착한 빛의 성질을 빠르게 담아내고자 이전의 방식인 팔레트에 물감을 섞는 것이 아닌 캔버스에 직접 순수한 색의 물감을 차곡하게 칠하면서 짧은 붓터치로 혼합되어 탄생한 새로운 인상주의 기법 그 자체의 ‘색채’를, 음악에서는 그 이전의 독일 전통적 관현악곡 편성과는 다르게 목관악기를 독주의 역할로 사용하거나 다양한 악기의 특유한 음색을 부각시키고 생소한 타악기들로 색채감을 강조하여 이룬 신비롭고 풍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프랑스 음악만의 ‘음색의 대비’이다.

표현주의 공유개념 첫 번째는 ‘내적 감정의 표출’이다. 19세기 말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화로 인하여 물질주의와 인간의 소외와 실존에 대하여 매우 불안정한 사회에서 뭉크는 인간 내면의 공포, 불안 등을 구불거리는 선과 강렬한 색으로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미술에서는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이 이에 속하게 된다. 음악에서는 말하는 선율이라는 뜻으로 음의 높낮이가 말하듯이 진행되는 ‘슈프레히슈팀메’가 해당한다. 이 성악적인 낭독은 인간의 내적 감정에 대한 가사의 직접적인 전달을 풍성하게 하면서도 음악적 선율도 잃지 않으면서 강렬한 표현력을 나타낸다.

표현주의 공유개념 두 번째는 ‘추상성’이다. 미술에서는 표현주의 회화 양식이 점

점 추상화되어감으로써 결국에는 대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칸딘스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형태가 없고 추상적으로 상징화하는 데에 활용된 ‘순수한 색채와 선의 형태’가 이에 속한다. 음악에서는 쇤베르크가 조성체계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지극히 순수한 예술적 표현을 위하여 시도한 ‘무조성음악’, ‘12음 기법’이 속한다.

다음은 위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한 차시별 지도 계획을 살펴보겠다. 1차시에서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사조의 특징을 비교하고 각 사조 안에서의 음악과 미술의 연관성을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차시에서는 각 사조의 음악과 미술의 기법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기법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화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한다.

2) 차시별 지도 계획

<표 3>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학습내용	지도대상
1차시 (50분)	1.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예술 사조의 특징 비교 2.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음악과 각 사조의 미술 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고등학생
2차시 (50분)	1.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과 미술의 기법적 특징에 대한 이해 2. 각 사조의 음악과 미술의 기법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화 학습	

본 논문의 1차시 수업 안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각각 사조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미술 작품인 모네의 해돋이와 뭉크의 절규를 보여주면서 음악 시간에 왜 미술 작품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대비를 이루는 두 작품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통하여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두 용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첫 번째 단계에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추가로 감상하며 즉각적으로 두 예술 사조 간의 특징의 대비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활동지 작성을 통하여 친구들과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개 두 번째 단계에서 인상주의 음악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의 플루트 독주로 시작되는 온음음계를 사용해 조성을 잘 느껴지지 않고 몽환적인 자아내는 초입 부분을 일부 들려주면서 직전 활동에서 학습하였던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미술 작품의 특징을 떠올리며 둘 중 어느 사조의 음악인지 질문하여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본격적인 감상 전에 경계가 모호하고 다채로운 색채를 표현하는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떠올리며 감상하도록 한다. 감상 후 인상주의 음악에서 규칙적인 박자가 느껴지는지, 어떠한 분위기인지 적힌 활동지를 작성 후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한다. 작곡가 드뷔시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고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정리하여 활동지에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을 미술 작품의 특징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세 번째 단계에서 표현주의 음악 ‘달에 홀린 피에로’ 제 1곡과 8곡을 영상으로 감상한다.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표현주의 음악을 이전 활동에서 학습하였던 표현주의 미술의 특징을 떠올리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활동지에 내용을 작성하고 발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표현주의 작곡가 쇤베르크를 잠깐 소개하고 ‘달의 홀린 피에로’의 가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감정을 드러내고 실험적 양식 요소가 느껴지는 표현주의 미술의 특징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미술 작품의 특징을 연계하여 활동지를 채우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마지막 단계에서는 ppt 자료를 통하여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특징과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특징을 큰 맥락으로 정리하고 두 사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다음 2차시에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 단계에서 드뷔시의 ‘달빛’과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 두 음악을 들려주고 각각 어떤 사조의 음악인지 퀴즈를 내어 마지막까지 두 예술 사조의 큰 맥락 안에서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의 취향은 예술 사조

인지 간단하게 질문 답변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2차시 수업 안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지난 시간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하여 인상주의 작품 중 모네의 ‘루앙성당’과 작곡가 쇤베르크가 직접 그린 파란색으로 표현한 ‘자화상’을 보고 어느 사조의 작품인지 알아맞히는 퀴즈를 내어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특징을 되새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첫 번째 단계에서 인상주의 미술의 기법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시간 감상하였던 ‘해돋이’와 함께 ‘루앙성당’을 감상하며 인상주의 예술 사조의 특징을 떠올려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작품인 ‘루앙성당’ 작품을 설명하고 지난 시간에 학습하였던 인상주의 예술 사조의 음악과 미술에서 나타나는 ‘모호성’과 ‘색채효과’ 안에 들어가는 미술 기법적 특징들을 이해하고 활동지 작성을 통하여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상주의 음악의 기법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감상하였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선 활동에서 배운 인상주의 미술에서 ‘모호성’을 나타내는 특징 두 가지를 떠올리며 감상한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호성’과 ‘색채효과’를 찾아내는 기법적 특징들을 학습하고 활동지에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세 번째 단계는 심화 학습으로 앞서 배운 음악과 미술에서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기법적 특징들을 사용하여 모듈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피아노 어플을 통하여 ‘온음음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해보고 ‘드로잉’과 ‘색채효과’를 색연필을 사용하여 그림을 완성하고 발표하여 다른 모듈의 그림과 생각을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세 번째 단계에서 활동지에 인상주의 음악과 미술의 기법적 연관성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 정리하여 개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네 번째 단계에서 표현주의 미술의 기법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감상했던 뭉크의 ‘절규’와 함께 쇤베르크의 ‘자화상’을 감상하고 표현주의 미술 사조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지난 시간 학습에서 알 수 있었던 표현주의의 특징 중 ‘내적 감정의 표출’과 ‘추상성’을 나타내는 미술의 기법적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다. ‘추상성’에 대한 기법적 특징을 알기 위하여 칸딘스키의 ‘인상Ⅲ’과, ‘구성Ⅷ’을 추가 감상하고 활동지에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다섯 번째 단계에서 표현주의 음악의 기법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달에 홀린 피에로’ 제 1곡과 8곡을 감상하고 선 활동에서 ‘내적 감정의 표출’과 ‘추상성’을 연관 지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후 기법적 특징으로 ‘슈프레히슈티메’와 ‘무조성 음악’과 ‘12음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여섯 번째 단계에서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내적 감정의 표현’을 위한 기법 중 미술에서 나타나는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을 사용하여 부정적 감정이 담긴 그림을 모둠 활동으로 완성하고 그 감정과 관련된 릴레이 가사 짓기를 통하여 ‘슈프레히슈티메’처럼 낭독할 수 있도록 한다. 완성된 그림과 가사를 발표하여 다른 모둠의 작품들과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마지막 단계에서 활동지에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기법적 특징의 연관성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 작성하여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단계에서 앞서 작성했던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각 사조의 음악과 미술의 공유 개념에 대한 기법적 특징을 그려서 작성한 벤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1차시에서는 미술 작품과 음악 작품을 충분히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작품이 어떠한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시청각적으로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작품을 비교하며 각 사조의 특징을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차시에서는 1차시에서 학습했던 미술 작품, 음악의 느낌과 특징들을 바탕으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각 사조의 미술과 음악의 기법적 연관성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연주, 창작 활동을 통하여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예술의 특징과 연관성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업 지도안의 실제

1) 1차시 수업지도안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1/2
수업 주제	미술 작품과 함께 감상하는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		
수업 목표	1.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같은 사조의 미술 작품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2. 인상주의 미술과 표현주의 미술 작품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 계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인사 및 출석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 인사 및 출결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p>	<p>그림 자료 p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다. • 그림작품이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동기부여	<p style="text-align: center;">◎ 모네의 작품 ‘해돋이’와 뭉크의 작품 ‘질규’를 동시에 보여주기</p>  <p style="text-align: center;">- 음악 감상 수업에 등장한 미술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작품임을 알려주면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두 용어가 주는 느낌을 말하고</p>	

		<p>의미를 추측해보도록 한다.</p> <p>- 미술 작품과 함께 감상하는 음악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한다.</p>		
	<p>학습 목표 확인</p>	<p>◎ 학습 목표 확인</p> <p>-모두 다같이 학습목표를 읽으며 오늘 학습할 목표를 확인한다.</p> <p>1.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같은 사조의 미술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p> <p>2.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p>		
<p>진개</p>	<p>인상주의 표현주의 두 미술 비교</p>	<p>1.인상주의 미술 작품과 표현주의 미술 작품 비교하기</p> <p>- 인상주의 미술 작품과 표현주의 미술 작품에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비적인 특징을 느낄수 있도록 두 사조의 미술 작품을 추가로 감상한다.</p> <p>:도입 단계에서 감상한 인상주의'해돋이'와 '절규'도 다시 한번 감상하며 용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어느 작품이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작품인지 추측해보도록 유도한다. 이후 '해돋이'와 '수련'이 인상주의 미술이고 '절규'와 '와' '카를 요한의 저녁이' 표현주의 미술임을 알려준다.</p>   <p>- 작품 감상 후 활동지에 내용을 작성한다. : 1. 화가가 어떤 장면을 그린 것 같나요? 2. 화가가 색채 표현을 어떻게 한 것 같나요?(선택하기) 다채롭다 or 단순하다</p>	<p>ppt</p>	

		<p>3. 그림의 윤곽이 어떻게 그려진 것 같나요?(선택하기) 구체적이고 뚜렷하다 or 윤곽이 모호하다</p> <p>- 표현주의 활동지 내용 : 1. 화가가 어떤 장면을 그린 것 같나요? 2.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3. 화가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한 것 같나요?(선택하기) 사실적으로 표현 or 왜곡적으로 표현</p> <p>- 활동지 내용 작성 후 발표를 통하여 서로의 내용을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p> <p>- 인상주의, 표현주의 미술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활동지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p> <p>-인상주의 미술의 특징 화가 모네 설명 : 인상주의 미술은 빛과 색채를 통하여 찰나의 시각적 감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인상’ 즉 짧은 순간에 화가가 눈으로 처음 인식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인상주의(Impressionism)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프랑스 화단의 진위적 화가들이 당시 파리의 예술원은 모네, 드가, 르노와르 등 비정통적 화가들의 작품전에서 모네의 작품인 <인상,해돋이>를 비꼬아 이들을 ‘인상주의자’라고 칭하며 비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빛의 역할을 강조하였기에 실내에서 그리지는 정물화나 인물화보다는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리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색의 변화와 명암의 대비를 통해 날씨, 계절의 느낌 등을 표현하려 하였다. 자연에서 포착한 빛의 순간적인 성질을 신속하게 담아내고자 캔버스에 순수한 색의 물감을 나란히 칠하여 놓고 짧은 붓터치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의 혼합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모든 것을 맡겼다. 결과적으로 선의 유동성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느낌의 색채가 탄생했다.</p> <p>: 프랑스 화가 모네는 이전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인상주의 미술의 시작을 알린 대표적인 화가이다.</p> <p>- 표현주의 미술의 특징과 화가 뭉크 설명 : 표현주의 미술은 19세기 말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처음 생겨나 음악, 문학, 건축 등 전 예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그 당시 불안정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겪는 긴장, 내적 갈등, 불안, 잠재적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황을 의도적으로 다소 기괴하고 추상적으로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실험성이 강하게 드러난다.</p> <p>:노르웨이의 화가 뭉크는 인간의 긴장,불안, 공포 등을 그려내었다. 표현주의의 대표적 작가이다.</p>	활동지	
	인상주의 미술이해			
	표현주의 미술이해			

	<p>인상주의 음악감상</p>	<p style="text-align: center;">- 내용 정리</p> <p style="text-align: center;">- ppt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지 추가 작성</p>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지 빈칸 채우기</p> <p>인상주의: 화가 (모네) / 작품명 (해돋이), (수련) : (인상)주의 미술은 한 순간의 (인상)을 이전의 형식에서 (벗어나)사물의 윤곽을(모호)하게 표현한다. 빛에 의해 변하는 사물의 다채로운 색을 표현하는 (색채)효과를 중시하였다.</p> <p>표현주의: 화가 (몽크)/ 작품명 (절규), (카를 요한의 저녁) :(표현) 주의 미술은 인간의 우울, 긴장, 불안, 충동과 같은 (내적 감정)을 형태의 (왜곡)을 통해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다소 (기괴)하고 (실험성)이 강하다.</p> <p>2. 인상주의 음악 감상,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p> <p style="text-align: center;">- 인상주의 곡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감상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와 함께 감상한다.</p> <p>: 본격적으로 감상하기 전 ‘목신의 오후’ 초입 일부 들려주고 선 활동에서 알게 된 미술 작품의 특징을 떠올리며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중 어느 사조의 음악일 것 같은지 질문하여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한다.</p> <p>: 인상주의 음악임을 알려주고 선 활동에서 알게 된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떠올리며 감상한다. :말라르메 시를 읽으며 감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p> <p style="text-align: center;">나는 이 요정들을 영원하게 하고 싶다. 그녀들의 연분홍색 살빛은 하도 깨끗하여, 무성한 잠에 졸고 있는 대기 속을 떠돈다.</p> <p>내가 사랑했던 것은 꿈이었나? 옛 밤에 축적된 내 의혹은 많은 작은 나뭇가지같이 끝나 버렸는데 이들이 그대로 진정한 숲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오후라! 나 혼자만이 장미꽃들에 대한 상징적 유린을 승리로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꿈꿈이 생각해 보자 그대가 쉬지 않고 이야기 하는 여인들이 그대의 상상적 감각이 원한 것의 형상이라면! 목신이어, 그 환상은 가장 정숙한 여인의 푸르고 찬 눈에서 나오듯 울고 있는 샘물 소리에서도 나온다.(하략)</p> <p style="text-align: center;">- 감상 후 활동지 내용 작성</p> <p>: 1.‘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2. 규칙적인 박을 감지할 수 있나요? (선택하기) YES or NO</p>	<p>• 같은 사조의 미술작품 특징을 생각하며 인상주의/표현주의 어느 사조의 곡인지 예상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	------------------	--	---

	<p>인상주의 음악의 특징 이해</p>	<p>3.곡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p> <p>- 작성 후 발표를 통하여 서로의 내용을 공유, 비교</p> <p>-인상주의 음악의 특징과 드뷔시 설명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의 문을 연 작곡가이다. 드뷔시는 독일의 전통적 음악 형식에서 벗어나 색채감 있는 새롭고 다채로운 음색의 음악을 작곡하였다.</p> <p>：“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드뷔시가 프랑스의 시인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플루트의 독주로 시작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치 목신이 부는 피리소리를 의미하는 것 같으며 시각적인 인상을 불러온다. :인상주의 음악은 불규칙적이고 박을 세기가 모호한 리듬을 사용하고, 전통 화성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화성과 다양한 악기의 새로운 음색을 사용해 이국적이고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p> <p>-내용 정리</p> <p>- ppt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지 추가 작성 :작곡가 (드뷔시), 곡명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인상)주의 음악은 (모호한)리듬을 사용하여 규칙적인 (박)을 감지할 수 없고 전통적인 진행을 (탈피)하는 화성과 다양한 악기의 특유한 음색을 사용하여 (색채효과)를 얻어내어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p>	<p>ppt 자료, 유인물</p>	
	<p>표현주의 음악 감상</p>	<p>3.표현주의 음악 감상, 원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p> <p>-표현주의 곡 ‘달에 홀린 피에로’ 제 1곡, 8곡 영상으로 감상하기</p> <p>- 선 활동에서 알게 된 표현주의 미술 특징을 떠올리며 감상</p> <p>-가사와 함께 감상하기</p> <p>제 1곡 가사: 눈으로 들이키는 술을 달은 밤새 파도에 쏟아 붓는다 숫구치는 파도는 넘쳐 고요한 수평선에 무섭고 감미로운 욕망 끝없이 헤쳐가 물살을 눈으로 들이키는 술을 달은 밤새도록 쏟아 부어 기도드리는 시인은 신성한 양조주에 도취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하게 비틀거리며 거침없이 들이킨다. 눈으로 들이키는 술을 .</p> <p>제 8곡 가사: 어둡고 거대한 나비가 태양의 찬란한 빛을 죽였다. 덮여 놓은 마법의 책, 수평선 위에 쉬고 있다.</p>	<p>활동지</p>	<p>•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과 표현주의 미술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표현주의 음악 특징 이해</p>	<p>잃어버린 저 깊은 곳의 추억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기억을 죽이면서 어둡고 거대한 나비는 태양의 찬란한 빛을 죽였다. 기억을 잃은 채로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의 심장 위로 내려앉는다. 어둡고 거대한 나비가..</p> <p>- 감상 후 활동지 내용 작성 : 1.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곡인 것 같나요? 밝고 행복한 or 어둡고 불안한</p> <p>2.곡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p> <p>3.악기 연주자 말고도 이 곡에 편성되어 있는 다른 연주 형태는 무엇인가요?</p> <p>- 작성한 내용 서로 공유하기</p> <p>- 작성 후 발표를 통한 서로의 내용 공유, 비교</p> <p>-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과 쇤베르크 설명 :쇤베르크는 표현주의의 문을 연 무조성음악 작곡하고 후에 12음 기법을 만들어낸 작곡가이다.</p> <p>: 달에 홀린 피에로는 쇤베르크가 뱀기에의 상징주의 시인 지로의 21개의 연작시에 곡을 붙인 음악이다. 21개가 3부로 나뉘어 구성되고 무조성의 음악이다. 말하는 선율인 슈프레히슈티메가 사용된다. 낭송자와 다섯명의 악기 연주자가 곡마다 다른 편성으로 되어있다.</p> <p>:표현주의 음악은 인간의 내적 감정을 드러내는데 주로 긴장, 갈등, 두려움, 충동 등 어두운 면을 표현한다.</p> <p>- ppt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지 추가 작성 : (표현)주의 음악은 갈등, 긴장, 불안 충동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였다. (무조성)과 불협화음, 불완전한 선율,특이한 악기편성을 사용하여 (기괴하고 추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p> <p>4.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 특징 구별하기</p> <p>-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의 미술과 음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p> <p>: 인상주의 Impressionism VS 표현주의 Expressionism 인상주의 : 외관적 세계의 순간적 인상을 묘사하였다. 표현주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였다.</p> <p>- 음악과 미술의 연관된 부분을 묶어 정리한다.</p>	<p>영상자료</p> <p>유인물</p> <p>활동지 ppt 자료</p>	<p>• 다음차시에 배울 기법적 연관성에 학습 하기 위하여 각 사조의 미 술과 음악 사 이에 연관되는 부분을 기억할</p>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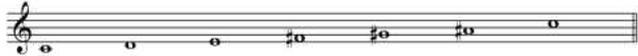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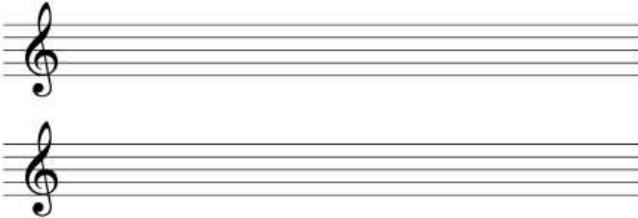
		<p>: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에서 연관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모호성'과 '색채효과'이다.</p> <p>: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에서 연관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내적 감정 표현, 추상적</p>		수 있도록 한다.
	정리	<p>-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드뷔시의 '달빛'과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 초반 일부를 듣고 어느 사조의 음악인지 퀴즈를 내기</p> <p>- 학생들의 각자의 취향은 어느 사조인지 짧게 질문 답변하며 수업 마무리</p> <p>- 다음 차시 예고</p>		-학생들이 두 사조의 특징을 구별하여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2차시 수업 지도안

지도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2/2
수업 주제	미술 작품과 함께 감상하는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		
수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상주의, 표현주의 각 사조의 음악과 미술의 기법적 특징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2. 인상주의 음악의 작곡 기법적 특징 중 하나인 온음 음계를 이해하고 피아노 어플을 사용하여 연주할 수 있다. 3. 슈프레히슈티메 가사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4. 표현주의 미술 특징을 살려 만든 가사와 관련된 감정을 나타내는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 		
단 계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p>인사 및 출석 확인</p> <p>동기 부여</p> <p>학습 목표 제시</p>	<p>◎인사 및 출석 확인</p> <p>-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p>  <p>◎지난시간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퀴즈내기</p> <p>-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작품 '루앙성당'과 쇤베르크의 '파란 자화상'을 보고 전 시간에서 배웠던 인상주의,</p>	<p>그림 자료, ppt</p> <p>•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표현주의 사조 미술 작품 고르기 퀴즈를 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습 목표 읽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상주의, 표현주의 각 사조의 음악과 미술을 기법적 특징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2. 인상주의 음악의 작곡 기법적 특징 중 하나인 온음 음계를 이해하고 피아노 어플로 연주할 수 있다. 3. 슈프레히슈티메 가사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4. 표현주의 미술 특징을 살려 만든 가사와 관련된 감정을 나타내는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 		
<p>전개</p>	<p>인상주의 미술의 기법적 특징</p>	<p>1. 미술 작품 ‘루앙대성당’ 감상, 인상주의 미술의 기법적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작품 감상하기 ‘루앙 대성당’ - 미술 작품 루앙대성당을 지난 시간 배웠던 인상주의 미술 작품 ‘해돋이’와 함께 감상하며 인상주의 미술 사조의 특징 떠올려 자유롭게 발표하며 복습하기 <p>: 인상주의 미술은 한 순간의 인상을 담기 위하여 그 이전의 사실적인 표현 형식에서 벗어나 사물의 윤곽을 ‘모호’하게 표현한다. 빛에 의해 변하는 사물의 다채로운 색을 표현하는 ‘색채 효과’를 중시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앙대성당’ 작품 설명 연결하기 : 루앙대성당은 모네가 빛에 따른 다채로운 색채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하여 일년동안 계절, 시간, 날씨가 다른 때에 그려낸 연작이다. - ‘모호성’을 나타내는 미술에서의 기법적 특징 설명 ‘드로잉’: 빛에 따른 순간을 담기에 자유롭고 빠른 붓 획의 붓질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로 인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드로잉은 무시되었고 독립적으로 사용된 여러 색채에 의하여 모호하게 표현되어 자연스럽게 윤곽은 흐려지고 대상은 불명확하게 묘사되었기에 전체적으로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색채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적 특징 설명 ‘다채로운 색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포착한 빛의 순간적인 성질을 신속하게 담아내고자 그 이전의 시대에서 팔레트에 물감을 섞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화지에 순수한 색의 물감을 이란히 칠하여 놓고 짧은 붓터치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의 혼합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느낌의 인상주의만의 색채가 탄생했다. - ppt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정리 및 활동지 작성 	<p>ppt,</p> <p>활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감상하며 그림에서 모호한 윤곽선과 다채로운 색채를 중심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p>:미술에서의 모호성을 주는 기법은? 드로잉</p> <p>:미술에서의 '색채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적 특징은? 다채로운 색채</p> <p>2.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감상, 인상주의 음악의 기법적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주의 곡 '목신의 오후' 감상 - 지난 시간에 배운 인상주의 미술 작품의 특징과 음악적 특징을 떠올리며 연관 지어 감상하기 - 직전 활동에서 배운 '모호성'과 '색채효과'의 특징을 떠올리며 감상하기 <p>:미술에서의 '드로잉', 다채로운 색채를 뽑어내는 '색채효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호성'을 나타내는 음악에서의 기법적 특징 설명 '리듬': 드뷔시는 마디의 분할과 박에 얽매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리듬의 변화와 자연스러운 음의 흐름을 구사하였다. 당김음과 잇단음표, 엑센트의 이동을 사용하여 박을 정확하게 세기가 모호하다. 마치 인상주의 회화에서의 모호한 윤곽선처럼 음악의 윤곽선도 처리하였다. <p>:당김음이란 쉐박과 여린박의 순서가 바뀌어 여린박의 위치에 쉐박이 나오는 것이다. 4분의 4박자로 예를 들어보자면 첫박과 셋째 박이 쉐박이고 둘째박과 넷째 박이 여린박에 해당하는데 쉐박에 쉐표가 있거나 여린박에 악센트가 있거나 이음줄로 전 마디의 마지막 음과 다음 마디의 첫박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해당한다.</p> <p>'다양한 음계': 드뷔시는 온음음계, 중세 교회선법, 5음음계 등 다양한 음계를 사용하여 음악에서의 색채적 효과를 얻어내었고 이러한 음계의 사용은 조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기에 그 이전의 음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모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효과'를 주는 음악에서의 기법적 특징 설명 '음색의 대비': 드뷔시는 이전의 독일 전통적 관현악곡 편성과는 다르게 목관악기를 독주의 역할로 사용하거나 다양한 악기의 특유한 음색을 부각시키고 생소한 타악기들로 풍부한 색채감을 주어 프랑스 음악만의 이룬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p>:잉글리시 호른은 오보에보다 완전 5도 낮은 구슬픈 음색을 가진 악기이다.</p> <p>:생발 앙티크는 작은 심벌즈로 '미'와 '시'음으로 구성된 맑은 음색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에서 유일하게 쓰인 타악기이다.</p> <p>:하프는 46개의 현을 가진 현악기이다. 줄을 튕겨 소리를 내고 신비롭고 우아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p>		
--	--	--	--

<p>인상주의 음악의 기법적 특징</p>	<p>- ppt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정리 및 활동지 작성 :음악에서의 모호성을 주는 기법은? '리듬' : 당김음, 잇단음표 사용 '다양한 음계': 온음음계, 5음음계, 교회선법 사용</p> <p>:음악에서의 '색채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적 특징은? '음색의 대비' : 목관 악기의 독주 사용, 생소한 악기의 사용</p> <p>3. 인상주의 음악과 미술의 기법적 특징 중 '모호성'을 주는 '온음음계' 연주와 '드로잉', '색채효과'를 사용한 그림 그리기 모둠 활동</p> <p>- 온음음계 설명 - 활동지 작성</p> <p>: 온음음계란 6개의 음 사이가 온음으로 이루어진 음계이다. 이는 구성음 간 음정의 관계가 온음으로, 어떤 음으로 시작해도 음정관계가 장2도로 동일하여 이끔음(leading tone)에서 으뜸음(tonic)으로의 끌림이 없고 중심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을 모호하게 한다.</p> <p>: 피아노에서 서로 붙어있는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으면 온음이다.</p>   <p>- 모둠별로 피아노 어플을 사용하여 '온음 음계' 연주하기 : 단선율 연주 및 몇 개의 건반을 같이 누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여 온음음계가 주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p> <p>- 온음음계 스케일 그리기</p>  <p>- '드로잉', '색채효과'를 사용하여 그림 그리기 :모듬 안에서 학교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의논하고 고른 후 그 장면의 시간, 날씨 등을 정하고 (ex, 이른 아침 겨울날의 등굣길 학교의 모습, 뜨거운 여름 체육 시간의 등) 정해진 시간 안에 색연필을 통하여 인상주의의 빠른 붓터치처럼 짧고 빠르게 색칠하여 윤곽은 불명확하지만 다채로운 색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p>	<p>ppt 자료, 활동지</p> <p>스마트 폰, 피아노 어플, 활동지</p>	<p>• 스마트 폰을 수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p>
------------------------	--	--	---

- 모듈별 그림 작품 소개하기

4.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연관된 기법적 특성을 활동지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 정리하기

- 미술과 음악의 공유 개념인 '모호성'과 '색채효과'에 들어가는 음악과 미술의 연관된 기법적 특성을 벤다이어그램의 교집합 영역에 작성하기

: '모호성'

미술: '드로잉' / 음악: '리듬', '다양한 음계'

: '색채 효과'

미술: '다채로운 색채' / 음악: '음색의 대비'

5. 미술작품 쇤베르크의 자화상과 칸딘스키의 인상III 감상, 표현주의 미술의 기법적 특징

- 미술 작품 감상하기, 쇤베르크의 '자화상', '붉은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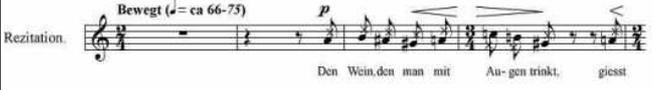


- 지난 시간 감상했던 표현주의 작품 '절규' 함께 감상하며 표현주의 미술 사조의 특징 떠올려 자유롭게 발표하며 복습하기



: 표현주의 미술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물질주의와 인간 소외감 등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시대에서 예술가들은 정신적인 혁명을 통해 삶의 본질을 다시 찾고자 이전의 인상주의의 풍경화나 대중의 취향을 위한 작품 더 이상 그릴 수 없었고 인간의 삶을 통찰하고 사회상을 반영함으로써 정신적 혁명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 인간 내면의 긴장과 불안함과 같은 잠재되어있는 억압과 충동과 같은 본질적 실체를 드러내고자

	<p>하였다</p> <p>: 쇤베르크는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 표현주의 회화 운동에 적극 활동하며 칸딘스키와 함께 청기사와 화가로서도 활동하였다.</p> <p>- ‘내적 감정의 표출’을 나타내는 미술에서의 기법적 특징 설명</p> <p>‘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 몽크는 인간의 감정을 탐구하였으며 불우하고 추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민을 길게 파도치는 선과 강한 색면으로 표현하였다 불안, 공포, 애정, 증오와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p> <p>- 칸딘스키의 ‘인상III: 연주회’, ‘구성 8 감상’</p>		
<p>표현주의 미술의 기법적 특징</p>	 <p>: 칸딘스키는 표현주의 청기사파를 조직한 화가로 색채와 형태로 추상세계 표현을 추구한 화가이다.</p> <p>‘인상III: 연주회’은 쇤베르크의 음악회에 다녀와 창작한 그림이다. 검은색은 그랜드 피아노를 상징화 하였고 여러 개의 검은 곡선은 무대 가까이 있는 청중이다. 피아노를 중심으로 흰 기둥은 소리기둥을 표현하였으며 노란색은 쇤베르크의 음악이 홀을 가득 채운 것을 상징한다.</p> <p>‘구성 8’은 음악의 악보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림 속 반원의 형태는 강, 약을 의미하고 음표와 화음의 연관성을 표현한 것이다.</p> <p>- ‘추상성’을 나타내는 미술에서의 기법적 특징 설명</p> <p>‘순수한 색채와 선의 형태’: 내적 요소를 색채와 선의 형태를 통하여 추상적으로 상징화 하였다.</p> <p>- ppt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정리 및 활동지 작성</p> <p>: 미술에서의 내적 감정의 표현’을 위한 기법은?</p> <p>‘형태의 왜곡’: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으로 표현</p> <p>: 미술에서의 ‘추상성’ 나타내는 기법적 특징은?</p> <p>: 순수한 색채와 선의 형태</p>		
<p>표현주의 음악의 기법적</p>	<p>5. ‘달에 홀린 피에로’ 감상, 표현주의 음악의 기법적 특징</p> <p>- 표현주의 곡 ‘달에 홀린 피에로’ 감상하기</p> <p>-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주의 미술 특징과 음악적 특징을 떠올리며 연관 지어 감상하기</p> <p>- 감상 후 활동지 내용 작성</p> <p>- ‘내적 감정의 표출’을 나타내는 음악에서의 기법적 특징</p>		

	특징	<p style="text-align: center;">설명</p>  <p>: ‘슈프레히슈티메’ : 인간의 내적 감정에 대한 가사의 직접적인 전달을 풍성하게 하면서도 음악적 선율도 잃지 않으면서 강렬한 표현력 성악적인 낭독이다.</p> <p>- ‘추상성’을 나타내는 음악에서의 기법적 특징 무조성 음악, 12음 기법: 쇤베르크가 지극히 순수한 예술적 표현을 위하여 조성체계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시도하였다.</p> <p>- ppt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정리 및 활동지 작성 :음악에서의 내적 감정의 표현’을 위한 기법은? ‘슈프레히슈티메’ :미술에서의 ‘추상성’ 나타내는 기법적 특징은? :무조성 음악, 12음 기법</p> <p>6.. 표현주의 미술의 ‘내적 감정의 표현’을 위한 기법중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을 사용하여 불안함, 긴장,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담은 자화상 그리고 그 감정과 관련된 슈프레히슈티메 가사 짓기.</p> <p>-모듬별 릴레이 자화상 그리기 :모듬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한 후에 표현주의 미술의 특징을 살려 릴레이로 그릴 수 있도록 한다.</p> <p>-릴레이 가사 짓기 :그림의 주제와 관련된 감정의 가사를 한 줄씩 돌아가며 짓도록 한다.</p> <p>-각 모듬별 그림과 가사를 발표한다. :달에 홀린 달빛 제1곡을 배경음악으로 틀어 슈프레히슈티메 기법처럼 따라하듯이 가사를 낭독 한다.</p> <p>7.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연관된 기법적 특성을 활동지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 정리하기</p> <p>-미술과 음악의 공유 개념인 ‘내적 감정의 표현’과 ‘추상성’에 들어가는 음악과 미술의 연관된 기법적 특성을 벤다이어그램의 교집합 영역에 작성하기 : ‘내적 감정의 표출’ 미술: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선’ / 음악: ‘슈프레히슈티메’ : ‘추상성’ 미술:순수한 색채와 선의 형태 / 음악:‘무조성음악’, ‘12음 기법’</p>	활동지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의 기법적 특징의 연관성		활동지, 색연필	
			활동지	

정리		<p>-활동지에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각 사조의 미술과 음악의 공유 개념과 그 안에 들어가는 연관된 기법적 특성을 작성한 벤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비교하며 내용을 정리한다.</p> <p>-사용한 색연필과 스마트폰 정리.</p> <p>-다음 차시 예고.</p>		
----	--	--	--	--

I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현대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로 이루어진 문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들이 넘쳐나고 이전에는 없었던 방대한 정보가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는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한다.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과 간의 통합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음악은 그 시대의 만연했던 사상 혹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반영하여 그 이전 어느 시대의 음악보다도 작곡가의 개성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요소들이 넘치는 음악이다. 혼란스럽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다른 예술 장르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움을 창조해내었던 음악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음악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기에 통합교육을 시도하는 데 매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의 실현이 어려운 실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가티, 드레이크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대음악과 다른 예술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연관성을 가지는 미술과 연계해 음악 교사 혼자서도 효과적인 음악, 미술 연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도안을 고안하여 부족한 예체능 수업 시수 안에서 두 개의 교과를 함께 다루어 그 내용의 범위가 커져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통합교육의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선행논문의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고 수업지도안을 총 2차시로 구성하였는데 선행논문에서 제시된 수업지도안은 모두 1차시에 인상주의, 2차시에 표현주의를 다루며 두 사조를 1차시와 2차시로 나누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시와 2차시 모두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한 차시 안에 함께 다루어 선행논문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두 사조는 명칭에서부터 대비를 이루고 작품에서도 즉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미술과 음악이 공유할 수 있는 연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먼

저 미술 작품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비교하며 특징을 구별하도록 한 후에 알게 된 각 사조의 미술적 특징을 떠올리면서 같은 사조의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관지어 생각하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같은 사조 안에서 음악과 미술이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 수 있도록 한다. 강한 대비를 이루는 두 사조 간의 대비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사조 모두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1차시에서는 큰 맥락 안에서 작품의 특징과 연관성을 이해하였지만 2차시에서는 1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조의 안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법적 특징을 가지고 심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술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현대음악을 음악만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고 시대적 흐름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 예술적 경향과 연관하여 이해하고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수업지도안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기에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며 다시금 느끼는 것은 창의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은 결국 통합성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다양한 지식 혹은 교과를 가르칠 때에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통합이 되고 경험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과와의 통합 수업을 위한 수업지도방안이 더욱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강현석(2003),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김영나(1996),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 1880-1914』, 시공사.
- 김재복(2000), 『통합교육 과정』, 교육과학사.
- 신인선(2006), 『20세기 음악』, 음악세계.
- 이경민, 최일선(2010), 『통합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학지사.
- 유광찬(2000), 『통합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이영만, 홍영기(2006), 『초등통합교육과정』, 학지사.
- 홍세원(2014), 『서양음악사 A history of western music』,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홍정수, 오희숙(2002), 『20세기 음악미학 이론 아도르노 달 하우스 크나이프 다누저』, 심설당.
- Carol Strickland,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 동굴벽화에서 개념미술까지』, 예경.
- Simona Bartolena, 강성인 역(2009) 『인상주의 화가의 삶과 그림』, 마로니에북스.

2. 학술논문

- 주대창(2004), “통합적 음악수업의 구성 원리 및 전개 - 초등학교 3-4학년울 중심으로”, 낭만음악사, 제16권 2호, 2004, 25쪽.

3. 학위논문

- 김현지.(2018), “미술 교과와 연계한 표현주의 음악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예영(2017), “타 예술과 연계한 현대 음악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엄숙영(2004), "추상표현주의의 드로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오은주(2009), "야수주의 미술과 원시주의 음악의 미학적 연계성을 통한 미술수업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이지선(2007), "미술과의 연계를 통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의 감상학습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장누리(2017), "인상주의 음악 감상수업 지도방안-드뷔시와 라벨의 음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장미(2014), "미술과 연계한 현대 음악 사조 학습 자료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최준영(2012), "근·현대음악의 효과적인 감상지도 방안 연구:중학교 3학년을 위한 음악과 미술의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4. 그림 출처

칸딘스키 <구성8> 출처

<https://www.guggenheim.org/artwork/1924>

모네 <루앙성당>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1045468500972129125/>

모네 <수련> 출처

<https://www.kunstmuseum.nl/en/exhibitions/monet>

쇤베르크 <붉은자화상> 출처

https://benopus111.files.wordpress.com/2012/01/schoenberg_blick-gaze-may-1910.jpg

칸딘스키 <인상III>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3/2012010302905.html

뭉크 <절규> 출처

<https://www.theartstory.org/artist/munch-edvard/>

모네 <해돋이> 출처

<https://arthistoryproject.com/artists/claude-monet/impression-sunrise/>

쾨베르크<자화상>

https://benopus111.files.wordpress.com/2012/01/schoenberg_blaues-s-p-february-1910.jpg

<부록1> 1차시 활동지

학년 반 이름 :

미술 작품과 함께 감상하는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

학습목표

1.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같은 사조의 미술 작품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2. 인상주의 미술과 표현주의 미술 작품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화가가 어떤 장면을 그린 것 같나요?

2. 화가가 색채 표현을 어떻게 한 것 같나요?

다채롭다 or 단순하다

3. 그림의 윤곽이 어떻게 그려진 것 같나요?

구체적이고 뚜렷하다 or 윤곽이 모호하다

화가 / 작품명

()주의 미술은 한 순간의 ()을 이전의 형식에서 () 사물의 윤곽을 ()하게 표현한다. 빛에 의해 변하는 사물의 다채로운 색을 표현하는 () 효과를 중시하였다.

1. 화가가 어떤 장면을 그린 것 같나요?

2.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3. 화가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한 것 같나요?

사실적으로 표현 or 왜곡적으로 표현

화가 / 작품명

()주의 미술은 인간의 우울, 긴장, 불안, 충동과 같은 ()을 형태의 ()을 통해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다소 ()하고 ()이 강하다.

1.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2. 규칙적인 박을 감지할 수 있나요?

YES or NO

3. 곡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작곡가 / 곡명

()주의 음악은 () 리듬을 사용하여 규칙적인 ()을 감지할 수 없고 전통적인
진행을 ()하는 화성과 선율을 사용하여 ()를 얻어내어 ()를 더욱 자아낸다.

1. 작곡가의 어떤 감정이 들어간 곡인 것 같나요?

행복한 or 공포스러운

2. 곡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3. 오케스트라 말고도 이 곡에 편성되어 있는 연주 형태는 무엇인가요?

작곡가 / 곡명

()주의 음악은 갈등, 긴장, 불안, 충동과 같은 ()을 표현하였다. 무조성과 불협화음,
불완전한 선율, ()을 사용하여 ()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러분들의 취향은?

인상주의 미술 or 표현주의 미술 / 인상주의 음악 or 표현주의 음악



<부록 2> 1차시 수업 ppt 자료

미술 작품과 함께 감상하는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



인상주의
VS.
표현주의

목차 contents

- 1 인상주의, 표현주의 미술
 - 1-1. 인상주의 미술 작품 감상
 - 1-2. 인상주의 미술 특징
 - 1-3. 표현주의 미술 작품 감상
 - 1-4. 표현주의 미술 특징
- 2 인상주의 음악, 표현주의 음악
 - 2-1. 인상주의 음악 감상
 - 2-2. 인상주의 음악 특징
 - 2-3. 표현주의 음악 감상
 - 2-4. 표현주의 음악 특징
- 3 학습 내용 정리

학습목표

1.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같은 사조 미술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다.
2. 인상주의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Part 1

1-1. 인상주의 미술





Part 1

1-1. 인상주의 미술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Claude Monet

인상, 해돋이 Impression : Sunrise

루앙 대성당 Rouen Cathedral

(인상)주의 미술은 한 순간의 (인상)을 이전의 형식에서 (벗어나) 사물의 움직임을 (묘사)하게 표현한다. 빛에 의해 변하는 사물의 다채로운 색을 표현하는 (색채) 효과를 중시하였다.

Part 1

1-2. 표현주의 미술



Part 1

1-2. 표현주의 미술

에드바르트 뭉크 Edvard Munch

절규 The Scream

(표현)주의 미술은 인간의 우울, 긴장, 불안, 흥분과 같은 (감정)을 형태의 (색채)를 통해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다소 (기괴)하고 (실감)이 강하다.

Part 2

2-1. 인상주의 음악

드뷔시 Claude Achille Debussy

달빛 Clair de lune

(**인상**)주의 음악은 (**모호한**) 리듬을 사용하여 규칙적인 (**박**) 을 감지할 수 없고 전통적인 진행을 (**회피**)하는 (**화성**)과 (**선율**)을 사용하여 (**색채 효과**)를 얻어내어 (**풍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 Debussy/Foto. Sanyal/Foto4824

Part 2

2-2. 표현주의 음악

슈베르크 Arnold Schönberg

바르샤바의 생존자 Ein Überlebender aus Warschau

(**표현**)주의 음악은 갈등, 긴장, 불안, 충동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였다. 무조성과 불협화음, 불안정한 선율, (**특이한 악기편성**)을 사용하여 (**기괴한**)분위기를 자아낸다.

© Schönberg/Foto. Sanyal/Foto4824

Part 2

인상주의 예술

모호	인상	색채 효과
운곽 리듬	순간의 인상	빛에 따라 바뀌는 색채 전통형식을 벗어난 화성, 선율

© Debussy/Foto. Sanyal/Foto4824

Part 2

표현주의 예술

감정	형태 왜곡	기괴
인간 내면으로부터의 갈등, 충동, 공포, 불안	선 색채, 형태 무조성, 불협화음, 특이한 악기편성	실험적

© Schönberg/Foto. Sanyal/Foto4824



Part 3

인상주의 음악 VS. 표현주의 음악

© Debussy/Foto. Sanyal/Foto4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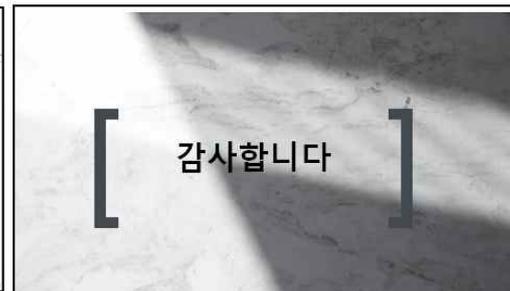
Part 3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VS.

- 외관적 세계를 묘사하였다.
- 전통 형식을 벗어난 화성과 선율을 사용하여 색채효과를 얻어내어 풍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 내면적인 감정 무조성과 불협화음, 불안정한 선율, 특이한 악기편성으로 표현
-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Debussy/Foto. Sanyal/Foto4824



ABSTRACT

A Study of Music Listening Method in Association with Art Curriculum

- Focused on Impressionism and Expressionism -

Min-Gyeo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Dae-Sik Hur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nnovative, comprehensive lesson plan for music education. Moving beyond the conventional delivery of compartmentalized knowledge, it incorporates art to spark student interest and enhance the music appreciation experience. Within the purview of the proposed pedagogical framework, music from the Impressionist and Expressionist periods is integrated with art pieces from analogous movements.

The eras of Impressionism and Expressionism were marked by substantial sociocultural shifts catalyz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various wars, leading to a state of public disarray. Notwithstanding these challenges, artists from these periods revolutionized traditional artistic forms and paradigms, forging unique and innovative styles that birthed exceedingly creative and groundbreaking works.

The creative aspects demonstrated by Impressionist and Expressionist artists is of high relevance to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undergoing rapid transformations. In today's knowledge-saturated worl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indi

viduals who exhibit creativity and convergence. The cultivation of such skills necessitates an underpinning of integrated thinking.

Within the context of this study, the integrated educational models posited by Fogarty and Drake have been adopt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designing music classes that interface with art. The rationale for this approach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an extensive review of preceding literature. Since Impressionist and Expressionist music inherently incorporates elements linked to concurrent art movements, joint exploration of music and art can promote enriched and efficient comprehension among students.

Diverging from previous studies that segregate sessions into distinct Impressionist and Expressionist modules, this research proposes a lesson plan that simultaneously addresses both artistic movements within a single session. This pedagogical design facilitates immediate comparison of artistic characteristics, courtesy of the stark contrast observable in works from these two styles. This approach is likely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apid understanding and wide-ranging learning experiences.

The first session entails a comparative study of Impressionist and Expressionist art forms,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 and art pieces from the same era.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second session advances to incorporate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the technical features and relevance of music and art from both movements. To augment comprehension, worksheets are designed to elicit personal reflections from each student, and collaborative group activities are structured to allow sharing and comparison of ideas.

This research provides students an opportunity to learn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ereby enhancing their understanding of a broad range of topics. This proposed lesson plan is anticipated to be an effective tool in the educational field, fostering creativity and integrative thinking skills in students.